

[자료해설]

극작가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에 대하여

윤석진**

한운사(1923~2009)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한국사회의 실상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 방송극의 초창기를 개척했던 극작가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당대 대중을 위로하기 위해 방송극 창작에 뛰어든 한운사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청취자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1960~1970년대 한국 방송극의 토대를 구축한 작가로 평가를 받았다.¹⁾ 특히 그는 “우리가 겪은 전쟁을 소화를 하고 넘어가자니, 그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었느냐, 그 시대 어른들이 무슨 이 망발을 했느냐, 또 그 어려운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들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들은 하나의 그 시대의 보고로서, 마땅히 냉겨줘야 된다.”²⁾는 생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극을 통해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대 대중에게 전달했다.

한국 방송극사에서 최초의 TV영화로 기록되고 있는 한운사의 6·25특

집극 <레만호에 지다>는 “언젠가는 남과 북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일찌감치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다. 1968년 정인섭 연출로 TBC에서 방송되었던 3부작 라디오드라마를 임학송 연출의 KBS 텔레비전드라마로 리메이크하여 1979년 6월 23일과 24일에 90분씩 2회로 나뉘어 방영되었다. 이영하, 정애리, 김진해, 이종만, 이신재, 나옥녀, 강민호, 반효정 등이 출연하였고, 최초의 해외 로케이션을 시도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스위스 한국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재원(이영하 분)’이 자신을 찾아온 북한 공작원 출신의 초로의 낯선 남자 ‘장근일(김진해 분)’을 만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의 <레만호에 지다>는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현재화시킨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 스위스 한국대표부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이재원은 본격적으로 외교관 업무에 착수하기 전,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도시의 대학답게 통역과로 유명한 제네바대학을 둘러보다 한국전쟁 중에 헤어진 아내 ‘하마리(정애리 분)’를 발견하고 놀란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탈출한 유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 제네바로 파견 나와 있던 북한 공작원 하마리 역시 남편 이재원을 보고 놀라지만 함께 있는 동료들의 의식해서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난다. 한국전쟁 당시에 헤어진 신혼부부가 남한의 외교관과 북한의 공작원이 되어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회한다는 극적 설정³⁾이 분단과 이산의 현실을 환기시킨다.

이재원은 아버지가 반동약질병환자로 몰려 인민군에게 납치된 후 한국이 당하고 있는 가혹한 시련에 대해 강력한 반항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조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외교관이 된 인물이다. 반면 하마리는 타고난 미모와 뛰어난 영어 실력에 남한 출신이면서도 당성까지 출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

* 한운사의 육필 원고와 등사된 대본에는 제목이 <레만호에 지다>로 표기되어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레만호에 지다>로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윤석진, 『극작가 한운사의 방송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145~148면 참조.

2) 이영미 채록, 『생애사1-사회성 있는 드라마 창작의 궤감』,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한운사(http://oralhistory, knaa.or.kr/oral/archive/ARTIST)』, 국립예술자료원.

3) <레만호에 지다>의 이러한 극적 설정은 <남과 북>(1964년), <하얀 까마귀>(1966)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이지만 다소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함께 파견 나온 공작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어 답답해하던 이재원은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마리를 찾아가고, 동료 공작원에게 감시받는 처지의 하마리는 이재원의 신변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원과 하마리가 부부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은 이재원에게 북한 공작원들이 제네바에 와 있는 목적을 밝혀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한 공작원은 하마리를 이용해 이재원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을 꾸민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짧은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목적과 상관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이재원과 하마리는 이국의 풍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한국전쟁 때문에 누리지 못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든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재원은 하마리에게 서울로 가지고 설득하고, 하마리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 평양에 있는 자식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며 이재원의 제의를 거절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갈 즈음 하마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비극을 원망하며 한 부모 형제라며 손을 잡아줄 날을 기다리며 떠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홀로 숙소를 빠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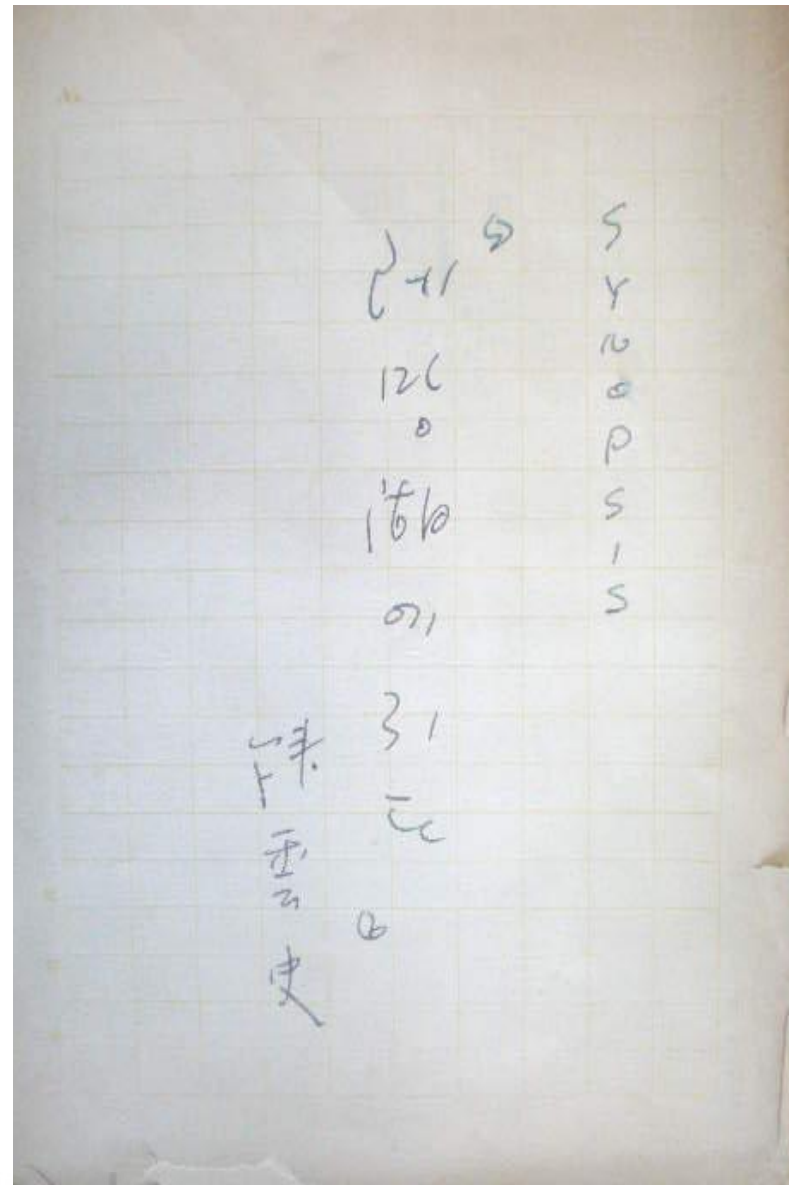
한편, 동유럽에서 도망쳐온 변절자들을 체포하지 못한 대신 남한 외교관인 이재원을 포섭하여 납북시키려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아쉬워하던 장근일은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지령을 받는다. 하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재원은 북한 공작원들이 묶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장근일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그리고 서유럽으로 탈출한 북한 유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는 장근일에게 이재원은 하마리를 망명시킬 계획으로 가짜 서류를 넘겨 주기로 한다. 이재원과 하마리를 두고 남한과 북한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남한 참사관은 두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고 제안한다.

이재원은 장근일에게 하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하마리는 마음과 달리 사랑은 순결하고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망했다며 표면적으로 이재원을 공격한다. 사랑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두 사람을 안타까워하던 남한 참사관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핏줄을 나눈 동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원과 하마리의 결혼식을 마련해 줘서 사랑의 순수함과 한민족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자고 북측 단장 장근일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하마리는 북한 체제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망명할 것을 권유하는 이재원에게 평양에 있는 아이가 바로 이재원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평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돌아선다. 하마리의 말에 놀란 이재원은 자신이 결국 하마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격이 되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동료 공작원들에게 잡혀가다시피 끌려간 하마리는 장근일에게 귀한 청춘을 모두 바치면서 최선을 다 했지만,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따진다. 장근일은 하마리에게 포도주를 권하며 조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권한다. 포도주를 손에 든 하마리는 남북통일을 빌미로 24시간 긴장을 강요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해준 이재원에게 자신의 루즈를 전해주고, 자신의 시체를 레만호에 뿌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당한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한 하마리가 포도주잔을 떨어뜨리며 처참하게 죽는 장면은 마치 순교자의 최후를 상징하는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만호에 지다>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신혼부부가 남한 외교관과 북한 공작원 신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을 확인하지만, 북에 두고 온 자식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도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여자가 끝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비록 표면적으로 ‘반공’을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근거로 통일을 지향함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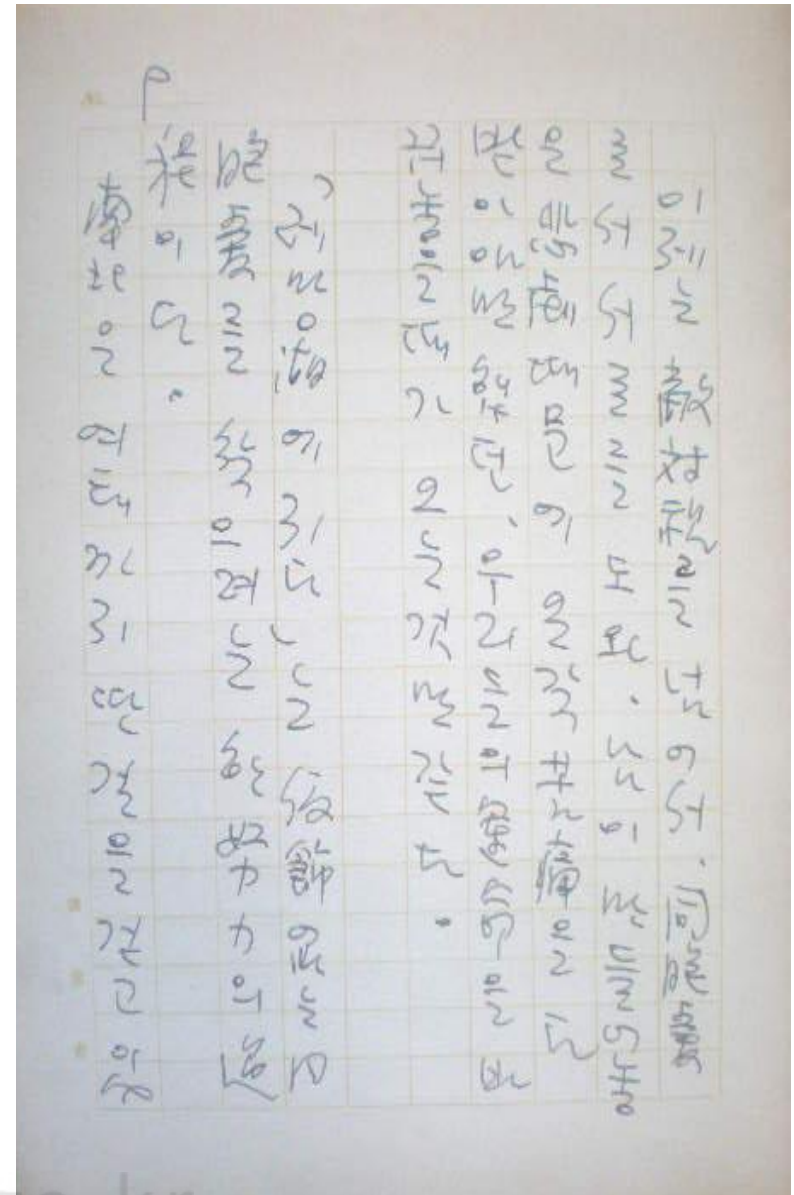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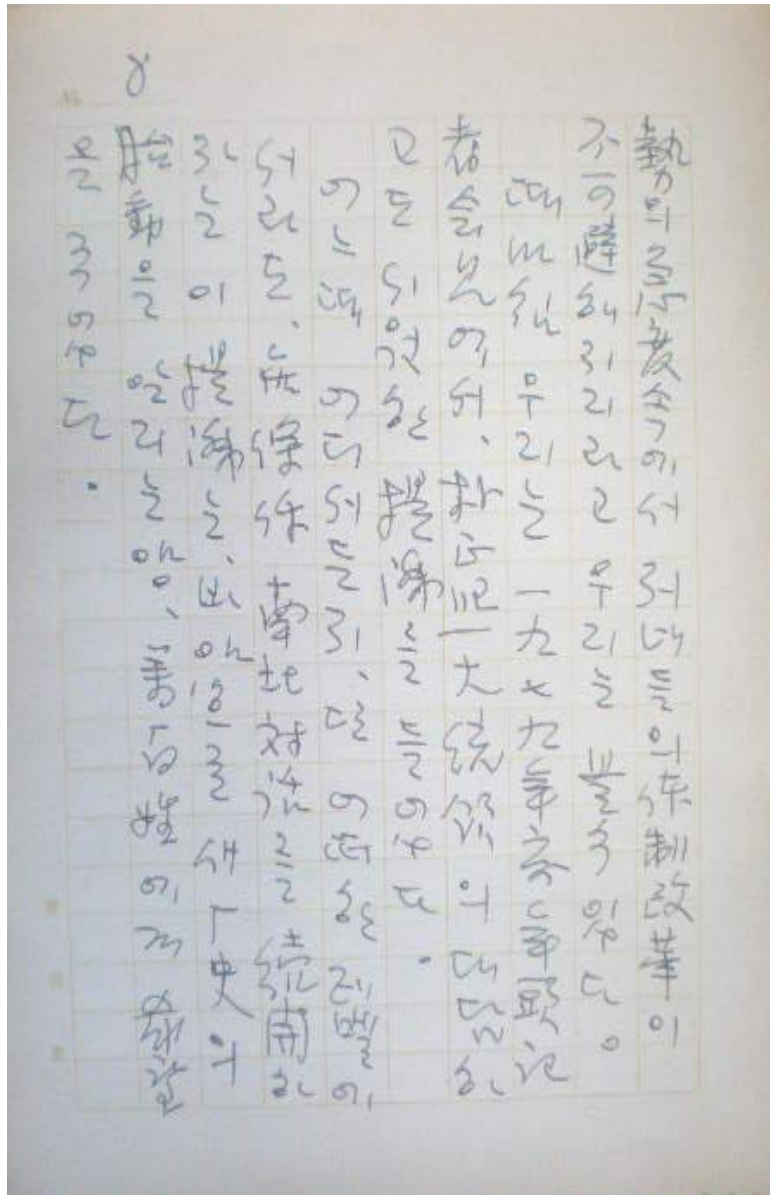
로써 결과적으로 반공드라마의 틀에 갇힌 특집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레만호에 지다>가 한국전쟁과 분단 현실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가적 고민의 결과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극예술연구』44집에 공개하는 자료는 한운사의 육필로 작성된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作意) 원고와 등사본 대본이다. 앞으로 한운사의 방송극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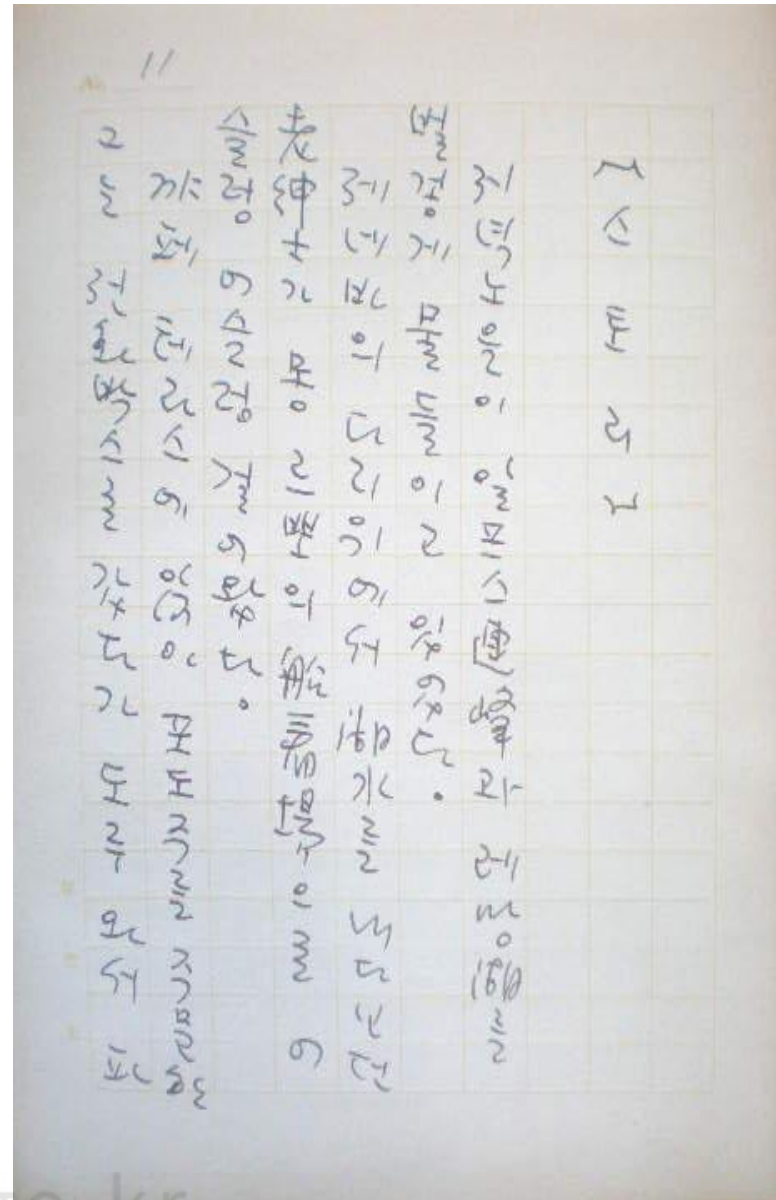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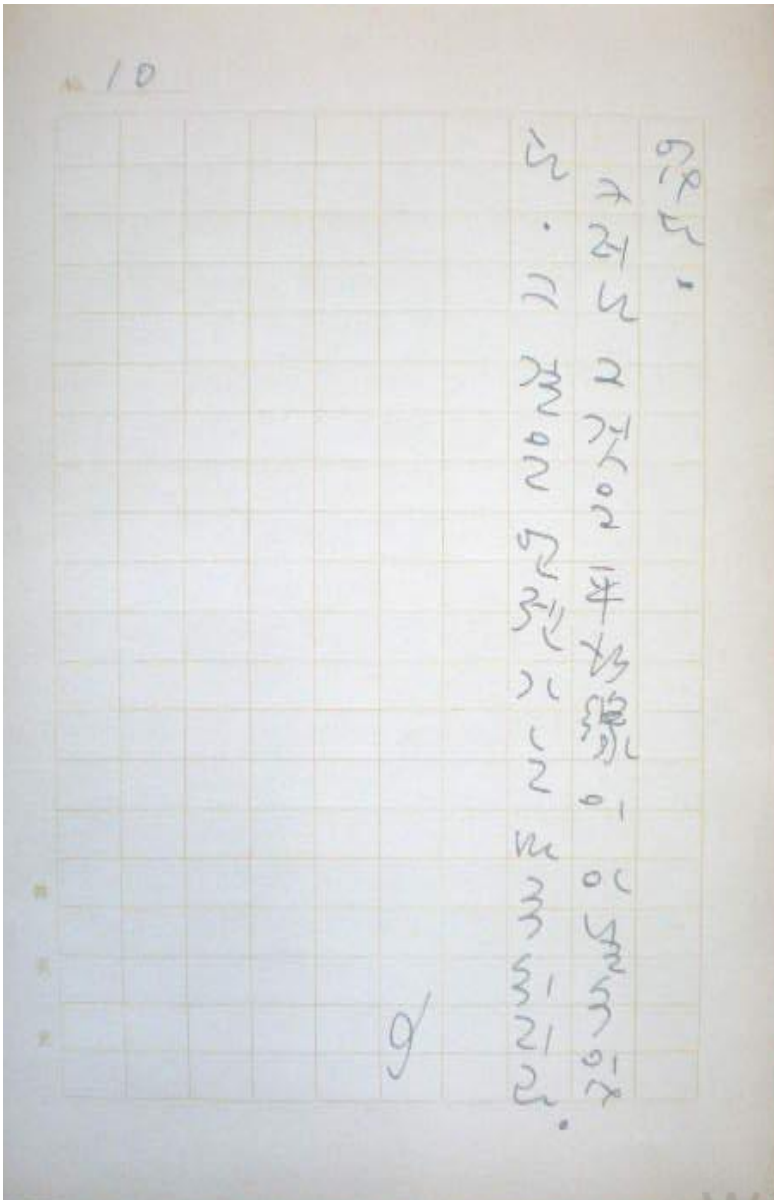


4) 남한 체제의 우월성은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다. "군사혁명 후의 새로운 한국은 근대화를 내세우고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 갈 것을 요구했지만, 북의 군사력이나 산업 발전에 비하여 다분히 낙후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북에 대하여 결연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의 존재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의 존중이, 우리 한국에서는 가능하나, 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동란을 통한 순수 실천의 귀중한 결론 때문이었다."(한운사 육필 원고 참고).

河馬利	北德留學家	河馬利
李在士	韓國外務部職員	李在士
張根一	北德漢口駐坡專員	張根一
吳大錫	中共通志使節團員	吳大錫
參子官	李在士(李)의 外務部職員	參子官
其他	其他	其他

1	李在士	李在士	李在士
2	張根一	張根一	張根一
3	吳大錫	吳大錫	吳大錫
4	參子官	參子官	參子官
5	其他	其他	其他





1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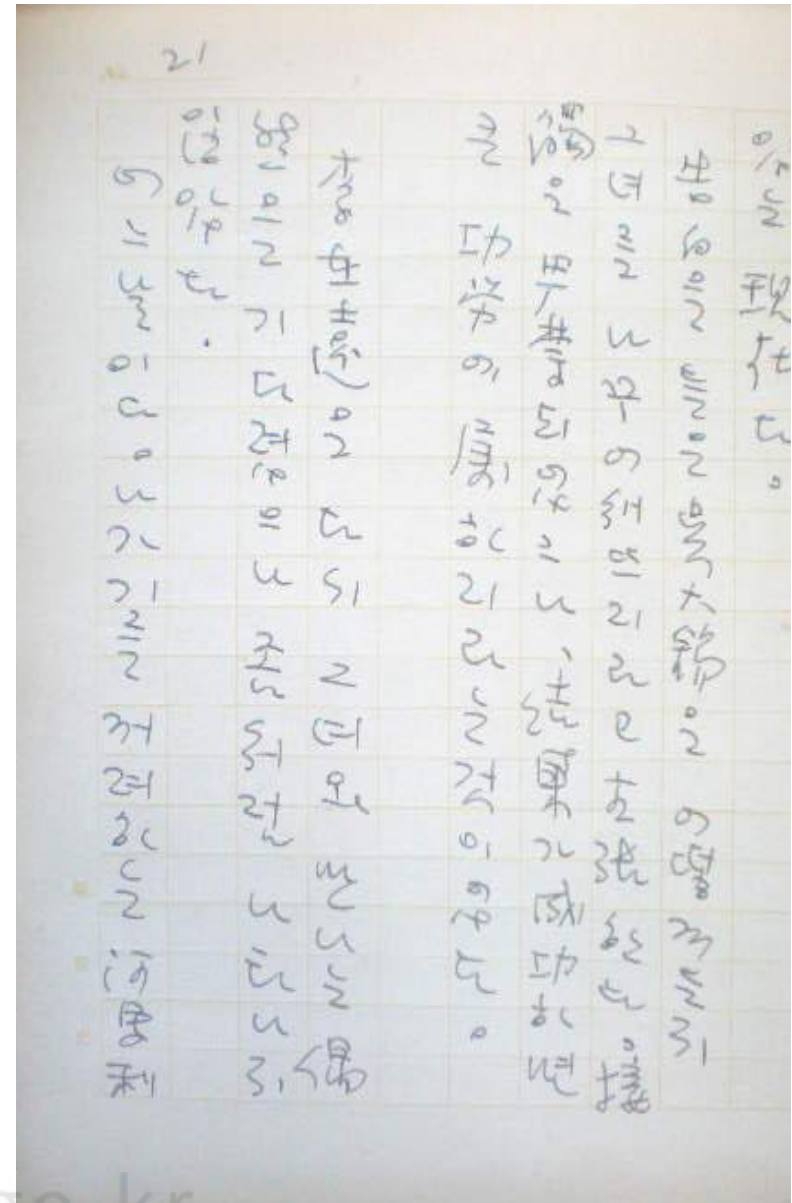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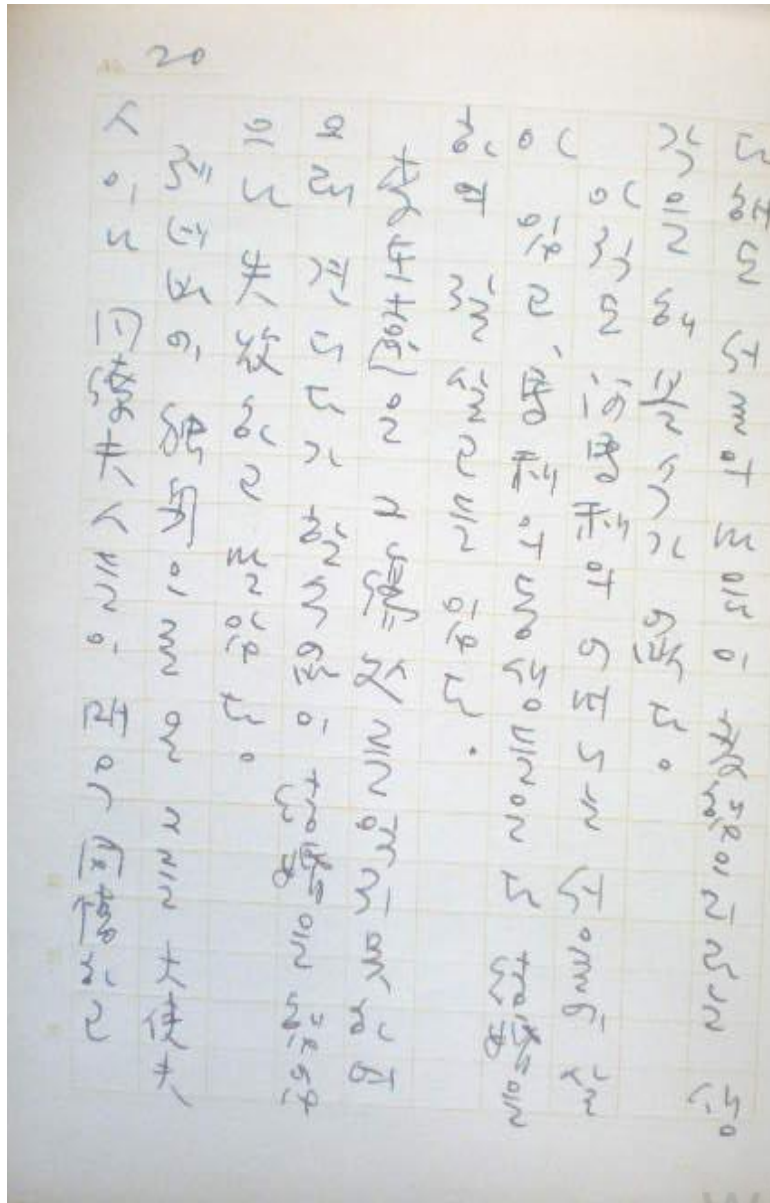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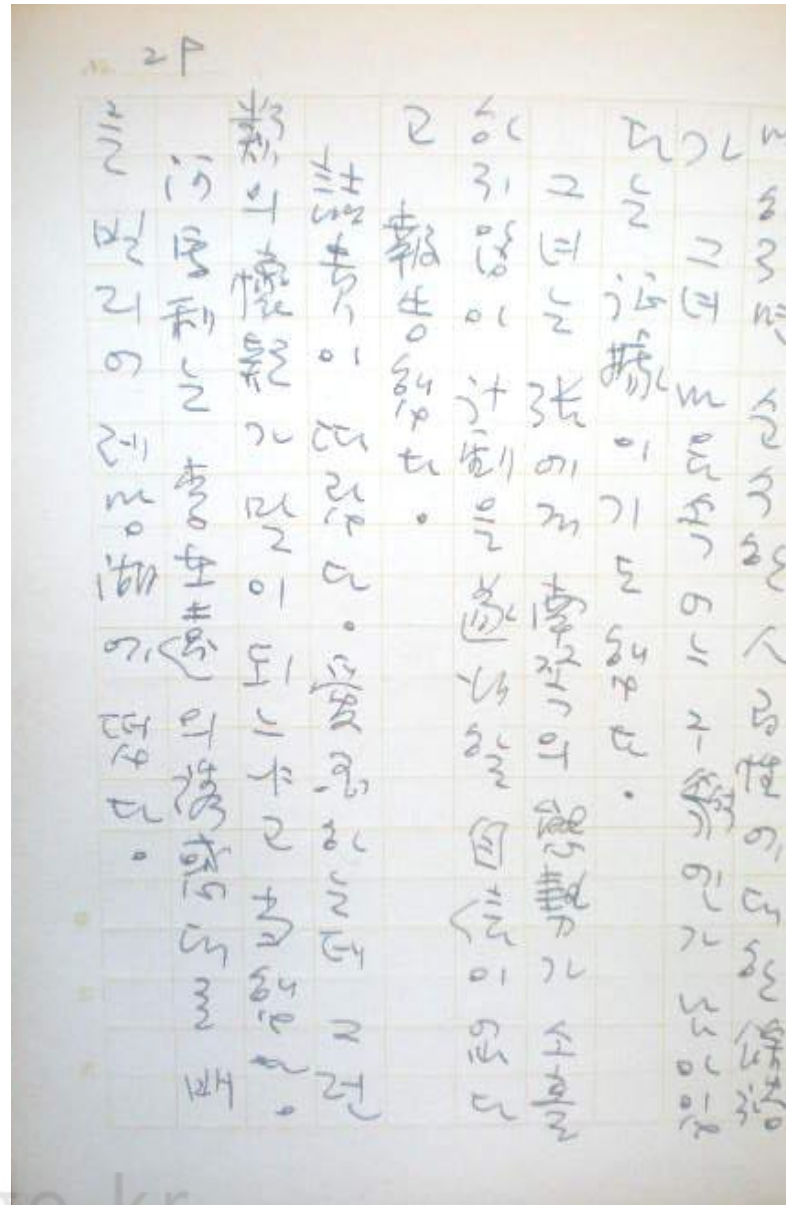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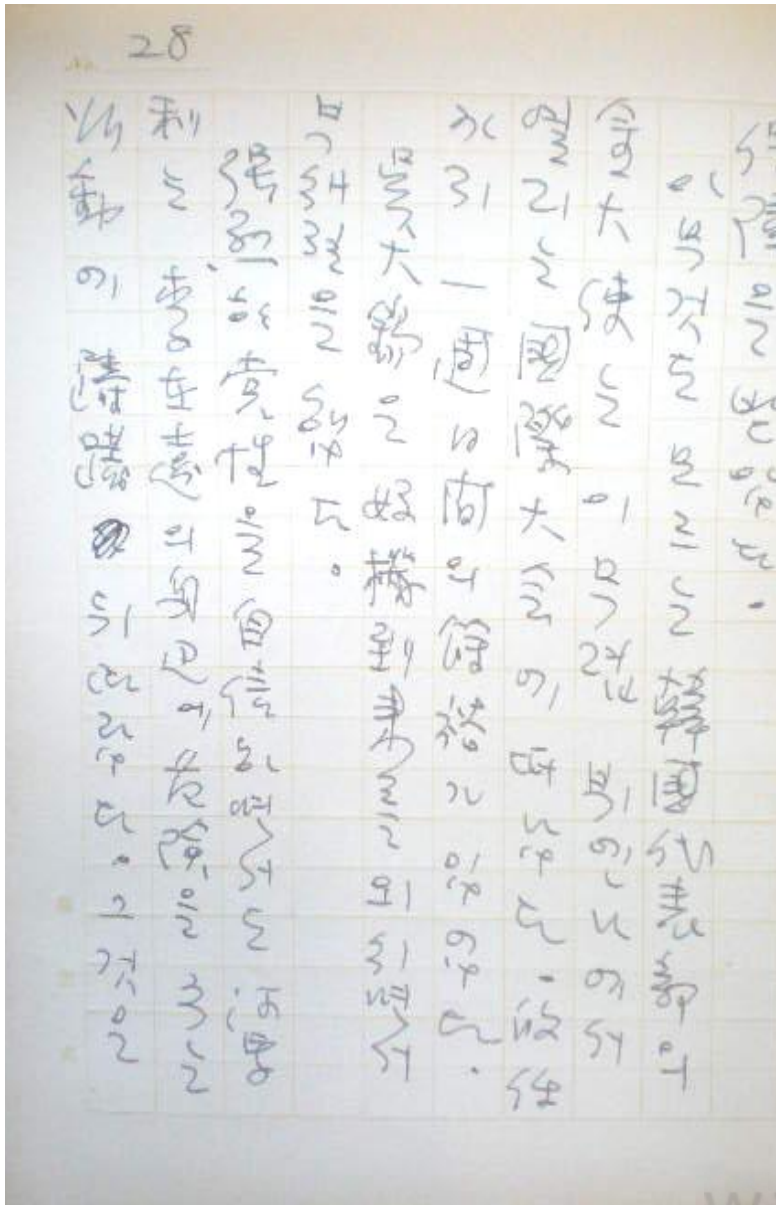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30

나를 잘 의탁해 주십시오. 自由(自由)의 자유(自由)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장 높이 들고서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31

나를 잘 의탁해 주십시오. 自由(自由)의 자유(自由)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장 높이 들고서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36

1. 이...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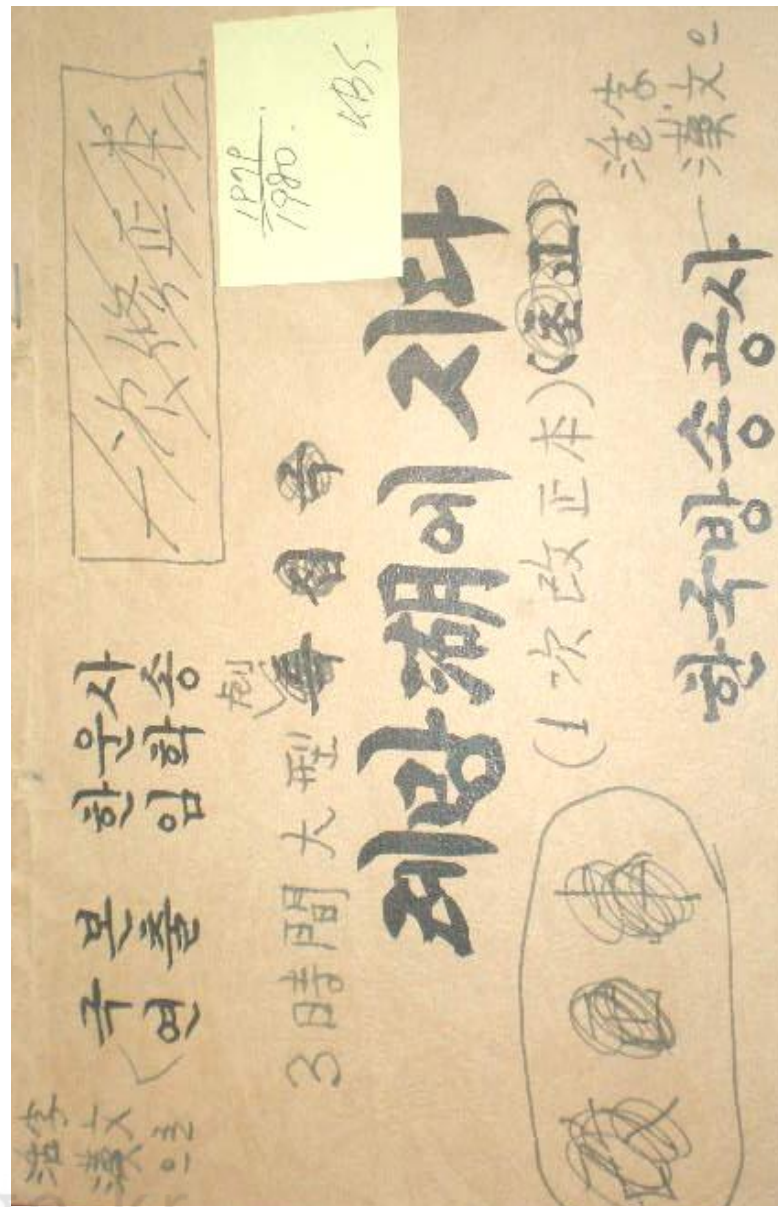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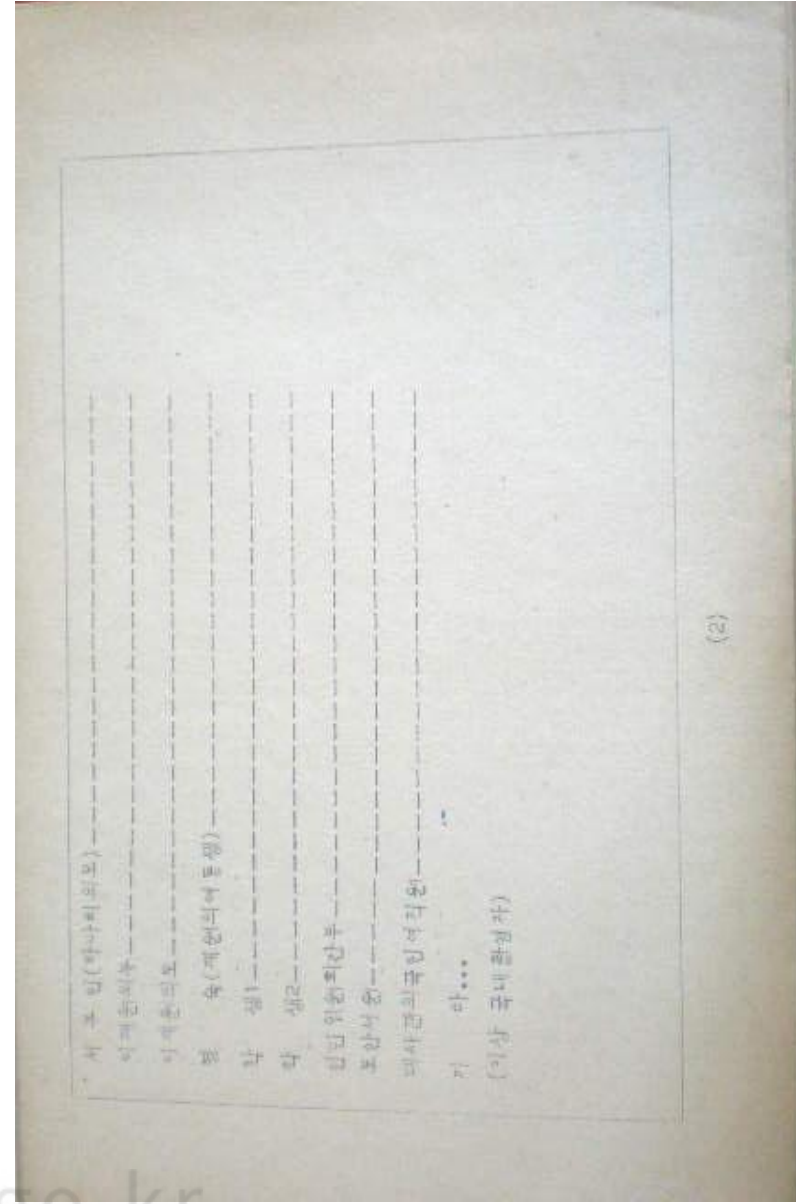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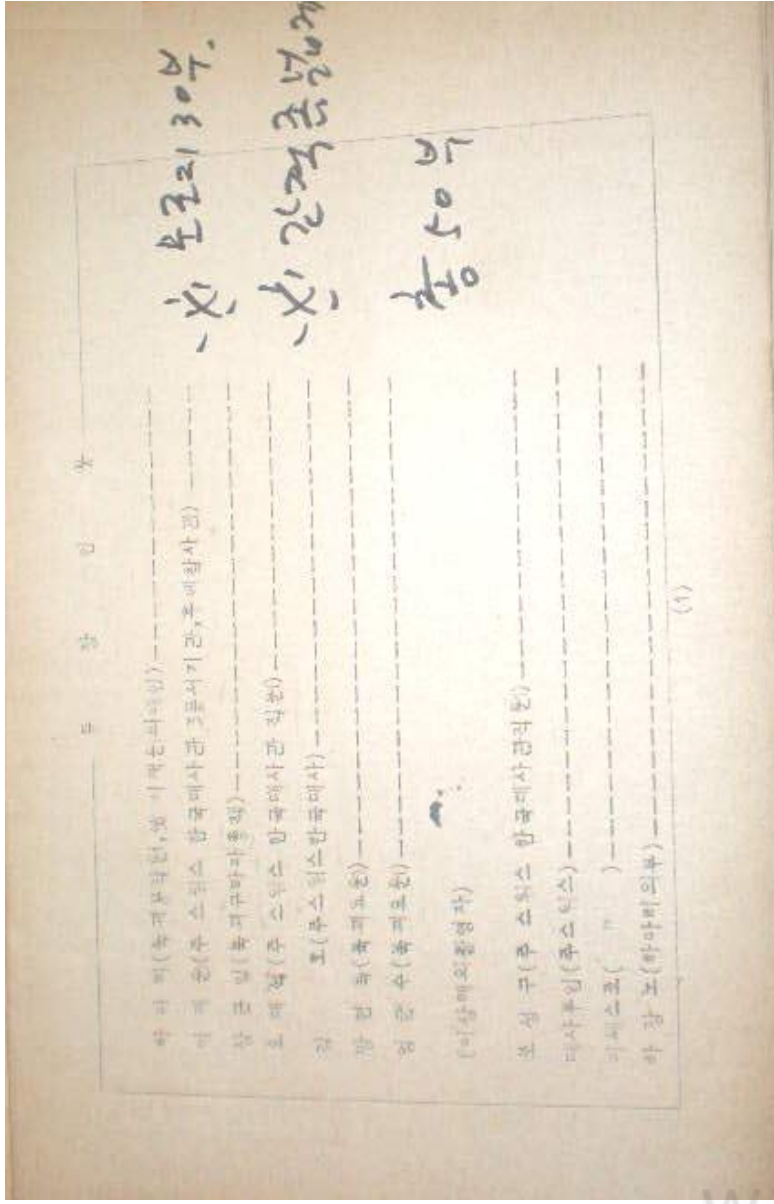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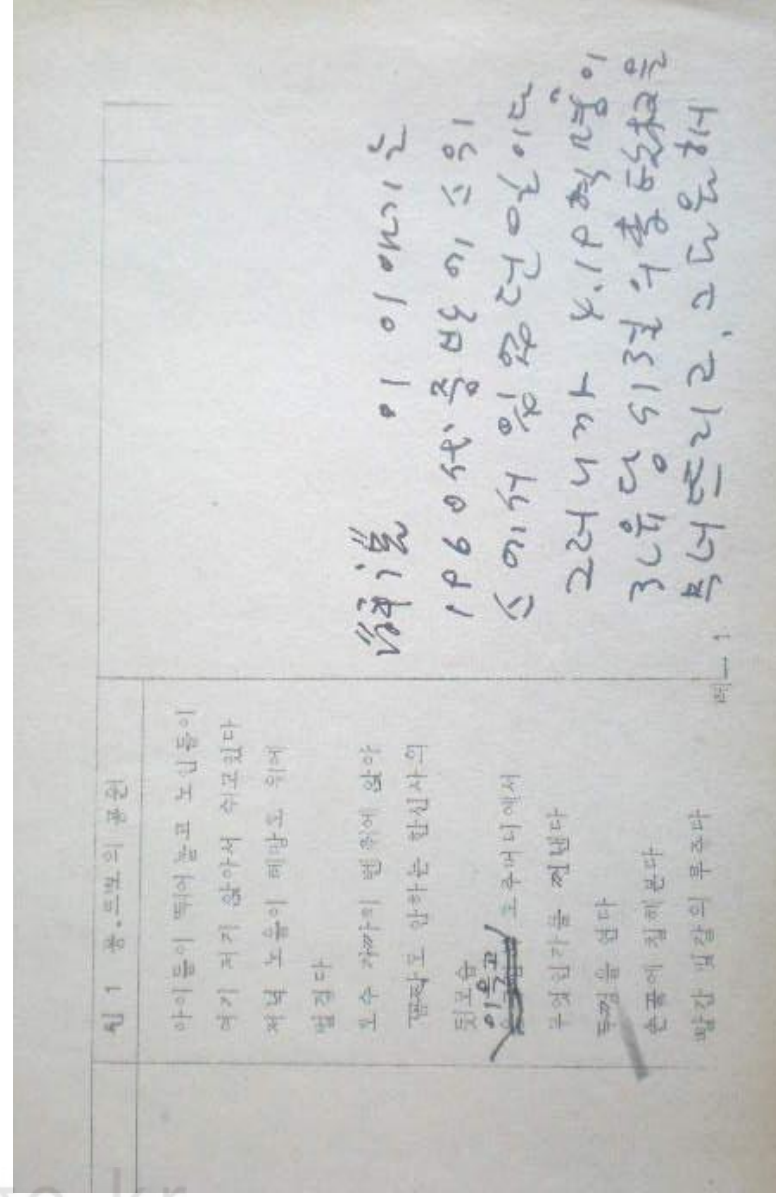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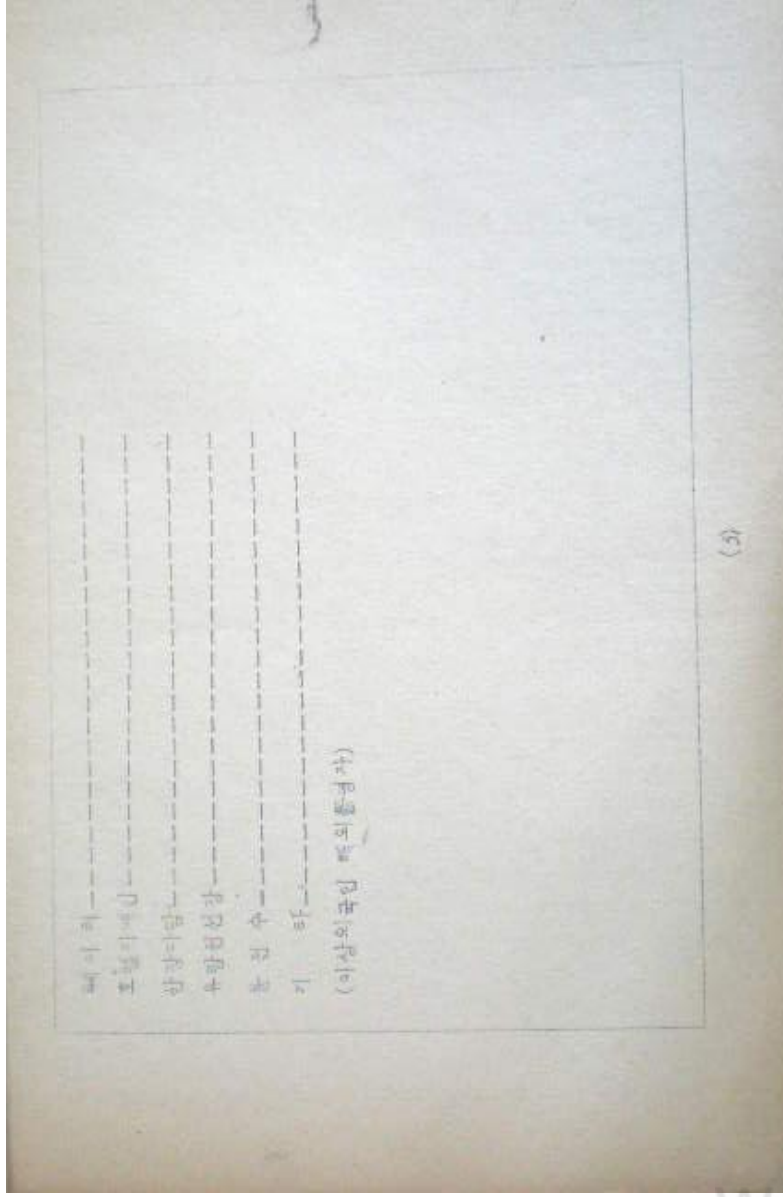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4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p>42</p> <p>5.16형 백이 연애리,
그 뒤 4.5형이 혼저간두의
스위스의 큐베브의
왕궁의 양모</p> <p>이 이야기 리는 이 이야기</p> | |
| <p>고개를 본다
삼골라스의 두눈이 포면의
노를을 다시 읊어한다.
50 거마운 노의
서양식수로 만들은 못수벌과
학수벌의 차이
이윽고 무의민가 걸침한듯
무주름 넣고 거슬렁 이슬형
걸어간다</p> <p>— 뒤 줄고 —</p> | <p>씬 2 북소로</p> <p>머리를 던져 주는 관객들
들며 뜨는 책 속의 때</p> |

| | | |
|-------------------|--|--------------------|
| | <p>그속에 십사가 끼여있다
그도 막이를 던져준다
미소를 입아갈까하다 사라진다</p> | |
| <p>씬 3 동브랑 교</p> | <p>어덜 터덜 걸어오는 노십사
포주머니의 무주를 꺼내준다</p> | |
| <p>씬 4 몽브람 거리</p> | <p>양쪽에 들비할 포주
시계포. 설행안네사.
노십사가 걸어온다
출저은 의국인 관공객들</p> | <p>산골가개,
V</p> |

노심사 곤욕 있다
부엌집자 열심히 모양
부러워지 길어삼다

원도 프랑스의 로렌 레나스

관광객들이 유년미 즐기고
있다

노심사가 온다. 앉는다
손가락으로 웨이타를 부른다

수절을 써낸다

| | | |
|-----|------------|--|
| 노심사 | 미어 플러이즈 | |
| 웨이러 | 에스씨 | |
| 노심사 | 웨이 티즈 릴리폰? | |
| 웨이러 | 오버 데어 | |
| 노심사 | 템류우 | |

| | | |
|--|------------------------------|--|
| <p>죽을 더듬다가 수절을 얹어
놓고 담배를 피워준다
천천히 진 피막스로 간다</p> <p>원도 자네부 한국 대포주
사주실</p> | <p>이제원 참사관이 전의를 받
는다</p> | <p>알포우.. 네? 남서 뚜렷이서 오신...
네우 이도 진씨... 저한테 진행 주님
어? 있따꾸요? 네.. 곧 가겠습니다</p> |
|--|------------------------------|--|

| | | |
|---|------------|--|
| <p>수피기를 놓고 고개를 가우
뚱 한다 나간다
에르.오</p> | <p>베-5</p> | |
|---|------------|--|

메 5

원 7 로렐 에라스

백주를 따라라 나시는 노집사
유점의 케랑도들 내다본다
아직도 노음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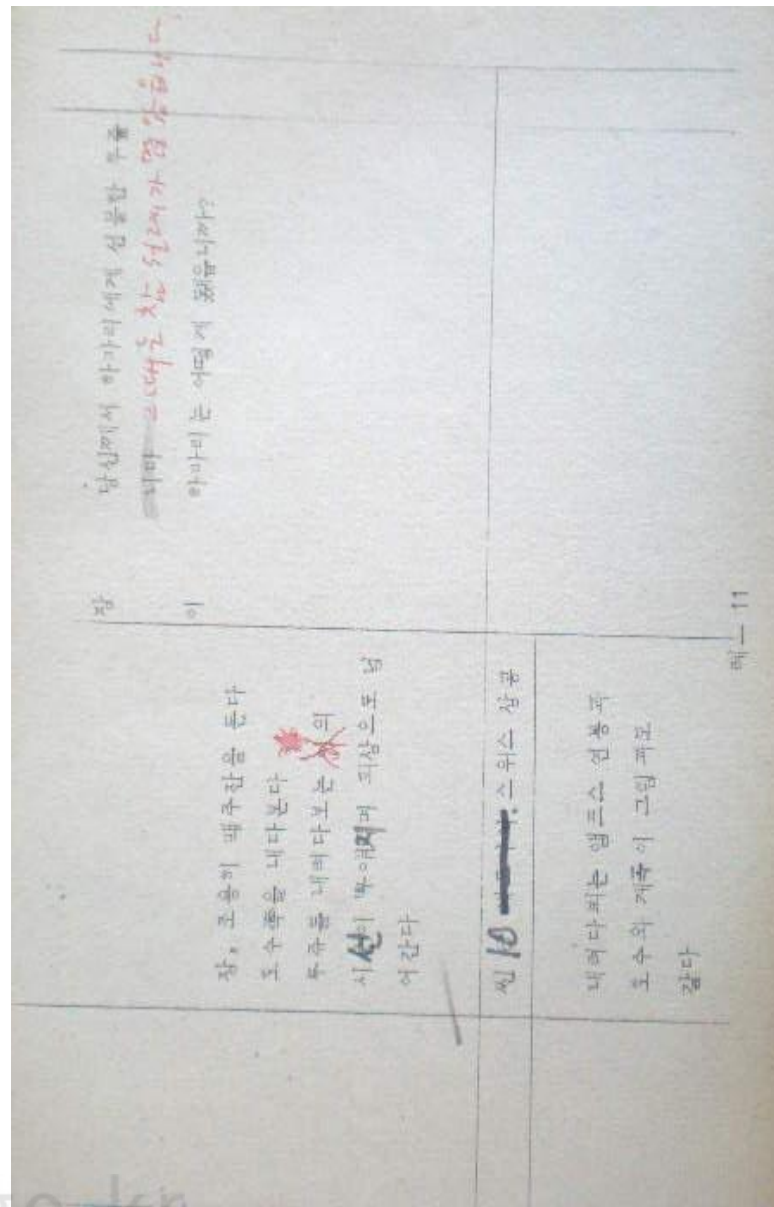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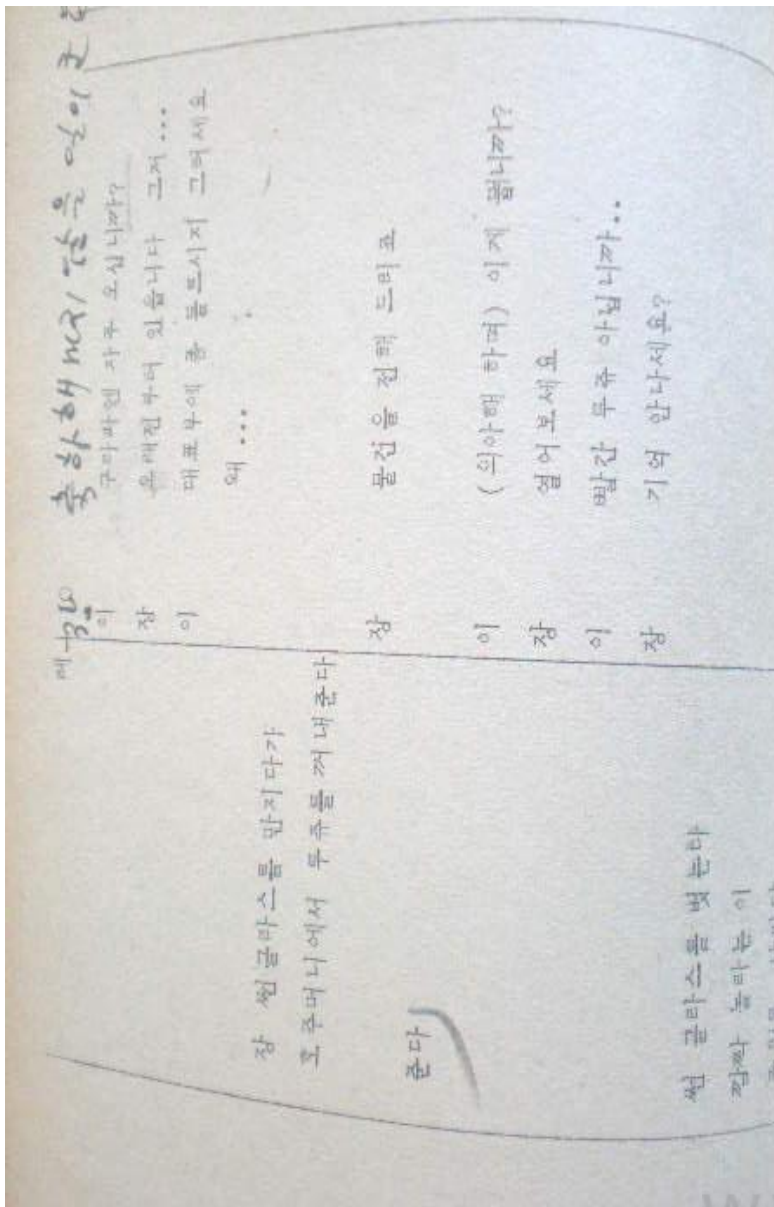
원 7 로렐 달리는 차안

운집하는 이참사관
어쩔지 이상한 어감에 사모
잡힌것 같다
로렐이 가짜와 진짜다
별는다
한참 에라스특유 분다

원 7 로렐 에라스

백주를 마시고 내력놓는
한근실의 등뒤도 이재원이
운다
사람을 찾는다
적막지 가도록 대버려준다
도루 운다
가카리 오자 길어친다
손을 들어줬다
이러원 의아한 혼수로 더가운
다

장 이선생이시표우
이제원 내그림습니다 야사 집표주집



썬 H 여객기 내

벵트신프가 켜진다
여러나라 인종들이 벵트름
맨다

캐스트
스텝

노스포킹 불이 들어온다
담배불을 끄는 젊은 이지원
약간 삼기된 얼굴이다
아나운스 **소** 펜트가 흘러 나온다

스튜워더스
(불어포) 신사숙녀 여객본 집
역포에 피로 하셨겠습디다
이 비행기는 본 세계의 관광모지이며
각종 국제 기구들이 출버치는
유네스의 ~~구~~ **2003년** 문화에 작륙하겠
습디다.
적의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디다

레망포에 솟아오르는 분수가
복합다

썬 12 프옹프랑공암 돌입구
오더췌 상동서기권이 기다리
고 있다

페이지 13

예- 14

저런지 역재기가 확폭한다
이웃과 나오는 손님들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이몸을
흔들 때는 서상여자를
이제 원이 나온다
손을 흔드는 오대석
발가미 짜안은 투사람

오 잘 왔따 잘 있어

1963년?

(자파) 1965년

오 왜 혼자 왔나?

원 13 탐미는 차안

오대석이 행들을 잡고 있다

이 혼자니까 혼자 왔어
오 오 맨스가 있다는 소문이던데...
이 (쓸쓸하게 창밖을 보며) 야직...
결심을 못했어
오 혼자 있긴 심심파따구 여긴...
이 흔들이 때를 벗자면 심심해 할
시감투 없을걸...
오 (웃으며) 어디 투구 보자
생시 없느냐 소리만 했따봐라

원 14 한국때포부 마당

포올스마겐이 들어온다
이 의요가 내림다

10

원 15 동, 사무실

조성구 이동 서기 겸이 서부출
들치고 있다

금발의 스위스 아가씨가 타이프를
치고 있다

오와 이가 들어온다

이 조 선생님 -

조 오 부슈리 (약수하며) 지 두렸지?

이 조 편찮습니다

조 원기 원성에 보이는데..

이 조 겁감합니다

조 마드포아젤압느 (불어포) 이 사람
이 마두 온다던 부슈리...
(불어포) 만나피서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다

안대칸다

원 16 대사실

돈보기를 벗으며 고개를 끄는
김포 대사

손을 내밀다

모두 앉는다

이 조 (불어포) 반갑습니다
대사님이 기다리구 계시니까...

이 김대사 두더이 최군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김대사 앉지

김대사 담배를 피워준다

김대사 이
장근성이랑... 모두 안녕들 하시구?
네 각별한 안부말씀 전해달라는
반투이시겠습니까

김대사 조
(조를 보고) 수오 정리는 퍼 있지?
네
둘서가 쉬지 좀
고단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두터데구 잤습니다
그냥...

김대사 이
심장이 강한 모양이군
(웃는다)

김대사 이
종아 이 구라파 원복판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자면 약한 심장 가진
침이 안떠니까... ~~복귀...이...들구~~
~~원...이...가...~~

모두 웃는다 -- 미플르--

신 17 대표부 정원 (남)

가든 파리로 이제 손을 잡으
합다
대표부 직원들 내외가 커피
모셨다.

이 이
박 부역감수서 두 개를 보냈습니다.
고3은 없으니까.

대사부인 그립데 부수미, 여기 포인 여성들은
원구가 하나 들출 알구 키대들
하구 있었는데 실감을 안겨준
짜답이 뭐요?
(여리동침)

이 19

| | |
|---|---|
| <p>11월 20
미세스프
오
이
오</p> | <p>엇진 연애를 하셨다는 소문이 저기
까지 돌버렸는데요
도라쿠 모른 사람이 그 한점으로
집중 꼭 나왔어
벌목업입니다</p> <p>아마 여기서 이재원 3동서기권을 장가
보내는 특진 회의마부 꼭 지켜주세요
겠읍니다</p> |
| <p>함에서 전파벨소리가 남다
포가 갑다</p> <p>모두 밭수</p> <p>원 18 사무실 (밤)</p> | |

| | |
|---|---|
| <p>포가 집회를 봤다 놀랄타
뛰어 다갑다</p> <p>원 19 정음 (밤)</p> <p>포가 뛰어 나오며 오십타</p> <p>우와! 감성을 지으며 왁수를
칩다</p> <p>순을 더칩다</p> | <p>포
포
포
포
포</p> <p>어우 미스시 모오푸우 마담</p> <p>취 푸수로 함덕 네파
데함원관 국 세가 하나를 있다
나왔대요?
래 그것두...</p> <p>1등 네시오</p> |
|---|---|

11-22

억울하게만 잡수었다. 학내순회 과
 가버렸다

오
 대사님 심에압니다, 무슈의 나중까지
 저렇게 좋아..
~~간~~ 지금 온 1화는 뭐야?
 었읍니다 친 딸이 나올거라구 그랬
 지문고

부인
 김대사
 조

미세스로 부침지는 밤키 결혼하세요 무슈 미

모두 웃는다

씬 70 재승의 밤 (밤)

잠옷바람으로 잠밖을 네다로
 고있는 재승의 뒷모습
 의롭다. 갑자기 휘 돌아서며
 두팔을 휘둘른다. 해보겠다는
 결심이 역력하다
 침대로 간다. 벌렁 놓는다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는다

11-23

11-23

21 대사 김

재승의 이서 재승 띄어보고
 있는 김대사
 이재승의 들어온다

이
 김대사
 이
 김대사
 이
 김대사
 이
 김대사
 이

부도없을거끼 데시김
 (김대사) 음 저네 있어 잠이꺼
 보게 볼래음 안느끼고 앓음너짜
 죽을어는
 거의 볼을입니다.
 볼어는 이형연가
 영원키 공부하디 앓습니다.
 김대사 제네버미는 데시김이 귀를 꼭 제기구
 가 모여있는때미 볼어들 큰모습은
 조강이 피쳐서 많이 ~~볼어~~ 볼어
 이복구 기합의들 앓디 좋습네...

11-23

이
이
이
이
이
이

제너러데라에 용역과기 일터구 불연
은 데오
세 개관으로 우림아터 극 제외의에서
을 시를것으로 말나아말을 구 시키는
시랑들은 대개 이화고 불신이 말아
기르진은 개?
내
좋은 불어를 화중양면 후 티로더 곁
나고관음은 너성들 불 강대제후 아엠페
애 휘이 생기다구
불나은 대후 다니구 진습니다
다니파구 근전에 제너바가 아엠페
생겼나 우선 관비회 를 아모구
감사합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더리를 강제로 강탈이 용도. 관내
부 부속이 모란. 쿠 내로
러 위상은 추너노기 조 화근 연화매
결정원준예를 기념 이문 근태..
차내 나물 제용이 관강에 폐이거거구
의관 내원하는 사림이다
불함은데
의역서 탐후나 서약중이관 조 예디
장이 그관 조력에서 일게이면서
너프다 관양수 일구나
안사업시를 자랑하는 미고 관이니까
말이플라 관연 양아우 이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한운사

| | | |
|------|---|--|
| 이-24 | 이기가 영국의 영원이야말로 | |
| 로 | 저건 불시계 | 엔24 불시계 |
| 로 | 저기가 그 영국의 영... 불이온은 | 엔25 |
| 이 | 국제안이 없지
미와 저의 미니에서 불이온 불이
잡고 불 계보거구 | |
| 로 | 이구 유두 오오잉시스로 | |
| 로 | 올드·미음의 영국의 불이거이 불
미구 | 엔26 레만호대학전망
올리오는 포동포구비계
아오포 불어간타 |

| | | |
|---|---|---|
| | | |
| 로 | 미안이거라 문관의안내는 이상으로
고척이겠타 포미가 오구집어 죽은
오죽어 가버구 나중저 미 불이오구말제
미약가 되리 마야 | 엔27 대학구대
포동포구비계에서 네미는 이
가버리다
이 권력의 고대로 들어가 있다
미로니에 나는 힘에 남아 죽은
이야기이고 죽은 채를 엮는 나
나관객들
미소를 미운고 이거거기를 불이
있어 불고 개척기 넘비죽으로 간다
카르파를 거둔데로 하고 피영·복수
네저의 부조산이 불만이다 |
| 이 | | |
| 로 | | |

배-29
 기가 좌절좌한 여자들이 구걸하고
 있다.
 젊은 여자가 돌아박는다
 순간 미로카미 관악 놀 마은이
 여자는 얼른 그 계를 들었다
 불 여자에게 지켜보았어.
 나이트 여자가 손을 옆으로
 이룬다
 죽고머니 저시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 미인이누라고 있다
 앉소리를 냈것제의 산파와 앉
 으로 나서는 이
 젊은 여자 나이트 여자의 소매를
 잡아끌며 떠난다
 나이트 여자가 돌아다 본다

이 이유 제때나이크우

| | | | |
|---|--------------------------|---------|--------------------|
| 만일
이 | 노모
그대이 왜이시이로? | 만일
이 | 꼭 북관에서 모시기 않았을지라도? |
| 만
이 | 미리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박박아래다) | 만
이 | 꼭 북관에서 모시기 않았을지라도? |
| 밤 단합이며 기마미를 본바
마리 망역소매를 끌고간다
두사람은 울음소리 시라진다
떠나니 서일현이 금이불이간다
제28 고 문
금이 나가는 망역이
저만에 뛰어오른 이
마리! 마리! 부르느소리
들려온다
불이 켜서 영하고 내키디모이 | | | |

레-30

이름의 기록
 권권이 율을 아게 끌어내버오는
 이계영

생년월일
 1920 오백석이네 거권
 웨이비리에서 요우를 관다
 미세스오가 램을 구역서준다
 신기를 피는 오와 이

이
 동양학교에 동양사관후보 학업나
 후 안음곡

이
~~출세했다~~
 의문아들이 단골로 다니거하
 키지따라 그것을 뱀녀가아 뱀을타나
 재더부 못지은것은 며
 중공아들은 안음곡까
 의문저부 모르지 중미키에 불상
 사정함이 의문입니다

이름의 기록
 권권이 율을 아게 끌어내버오는
 이계영

생년월일
 1920 오백석이네 거권
 웨이비리에서 요우를 관다
 미세스오가 램을 구역서준다
 신기를 피는 오와 이

이
 동양학교에 동양사관후보 학업나
 후 안음곡

이
~~출세했다~~
 의문아들이 단골로 다니거하
 키지따라 그것을 뱀녀가아 뱀을타나
 재더부 못지은것은 며
 중공아들은 안음곡까
 의문저부 모르지 중미키에 불상
 사정함이 의문입니다

레-31

이름의 기록
 권권이 율을 아게 끌어내버오는
 이계영

생년월일
 1920 오백석이네 거권
 웨이비리에서 요우를 관다
 미세스오가 램을 구역서준다
 신기를 피는 오와 이

이
 동양학교에 동양사관후보 학업나
 후 안음곡

이
~~출세했다~~
 의문아들이 단골로 다니거하
 키지따라 그것을 뱀녀가아 뱀을타나
 재더부 못지은것은 며
 중공아들은 안음곡까
 의문저부 모르지 중미키에 불상
 사정함이 의문입니다

이 없어요
 그 여자는 고시원인가?
 물어가봐요 (물어가면 안되)
 커닝에 너를 수 없어요
 없어요
 나쁜
 남매는 없어요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물어가면 안되)
 관미디만 따...
 그 여자가 오랜 문제가 생겨요
 가디했다 따위를..
 10여년 동안이나.. 그냥 헤어질 수 없어
 비모런 처갓이 왜 우리가 애길 못 해?
~~문남까지 너의 구름~~ **안하르르 두하**
 와오 고시원의 (물어가면 안되)

| | |
|---|---|
| 이 | 내일 공부 끝나고 커피점 앞에서 기다릴게. 꼭 나와. 꼭.... |
| | 문 |
| 아 | 라마의 동아만다
저만서에서 보고 있던 방현옥이
시커미를 예고 돌이온다
굶은 얼굴로 나뭇이 앞은 두 여자
불어진생의 광외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장 거 비
주여인이 시구록하니 귀여운디
커만지 따라오는 보물포스 바겐
선장 차 안
짐작하니 따미기는 오 데선의
운관송씨. 긴장하고 있는데. |
| 아 | 내일 공부 끝나고 커피점 앞에서
기다릴게. 꼭 나와. 꼭.... |

| | | | |
|-----------------------|-----------------------|-----------------------|-----------------------|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 | | | |
|-----------------------|-----------------------|-----------------------|-----------------------|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2
2
2
2
2 |

레-50

이
 (피관급도 풀어야지) 광동부 계간
 관 피관미시는 도 일인데 그 미년
 녀일부 미 미 관고 관서기였을시미

밤
 미동부 풀 피관미관관 미미...
 지동부 관 미미는지미.
 미안미로 미동부...

미미 피관급 도마를 따라미미미
 일가에 미소 풀 피우는 밤
 건관계를 온디.

레-50

포고 주를 따라 한쪽을 마시면서
 유유의 도아 쪽으로 간다
 때 세립된 모습이나 십가에
 당성의 강도가 서려있다.
 녹소미가 나자 일론 열어준다
 발현속이 들어온다

않는다

잠
 수업이라는데 불미...
 어제일부터 밤 숨 드려야 겠습니다.
 카트방상 앞에서 남남부 청년 하나
 를 만났습니다.

남반부 청년..
 일 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나 뭉기엔
 예감이 이상해서 하봉우 손을
 구 막 오는데 마티 마티 하구
 부드럽잖시오?
 (누표정하게 들는다.)
 야는 사람이냐 불스니까 아니라기
 예 어쩔 모고를 안디렸지만..
 오늘은 물이 한잔 얘기를 하구
 있잖 ~~아니~~ **잖시오**
 .. 무슨 얘길?
 모르잖시오. 담황하는 얼골로
 얘기하고 있기에 한참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봉우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면

사람이라고 다 알아야 할 거
 제가 보기엔 분명히 두 사람이 사
 사이 같은데 말입니다.
 둘이 같 있나?
 오늘 구리가 오는데 하봉 우랑마
 는 혼재잡았어요.
 하봉우
 예
 동기를 침부분 의심하지 마시오.
 침착하게 이 불덩이 죽일 때까지
 침착하게요. 주신 임원 공책국이
 하봉우에게 파견할 줄 알지?
 예
 의심하지 마시오. 이 불덩이 침착
 하게 침착하게 죽일 줄 알지?
 예

장 방
 장 방
 장 방
 장 방

우리가 무슨 얘길?
 우리도 무슨 얘길?
 우리도 무슨 얘길?
 우리도 무슨 얘길?
 우리도 무슨 얘길?

www.kci.go.kr

헤--44

신 40 대표부 올림심

추성구 가거련씨의 갑작
 놀란다 이등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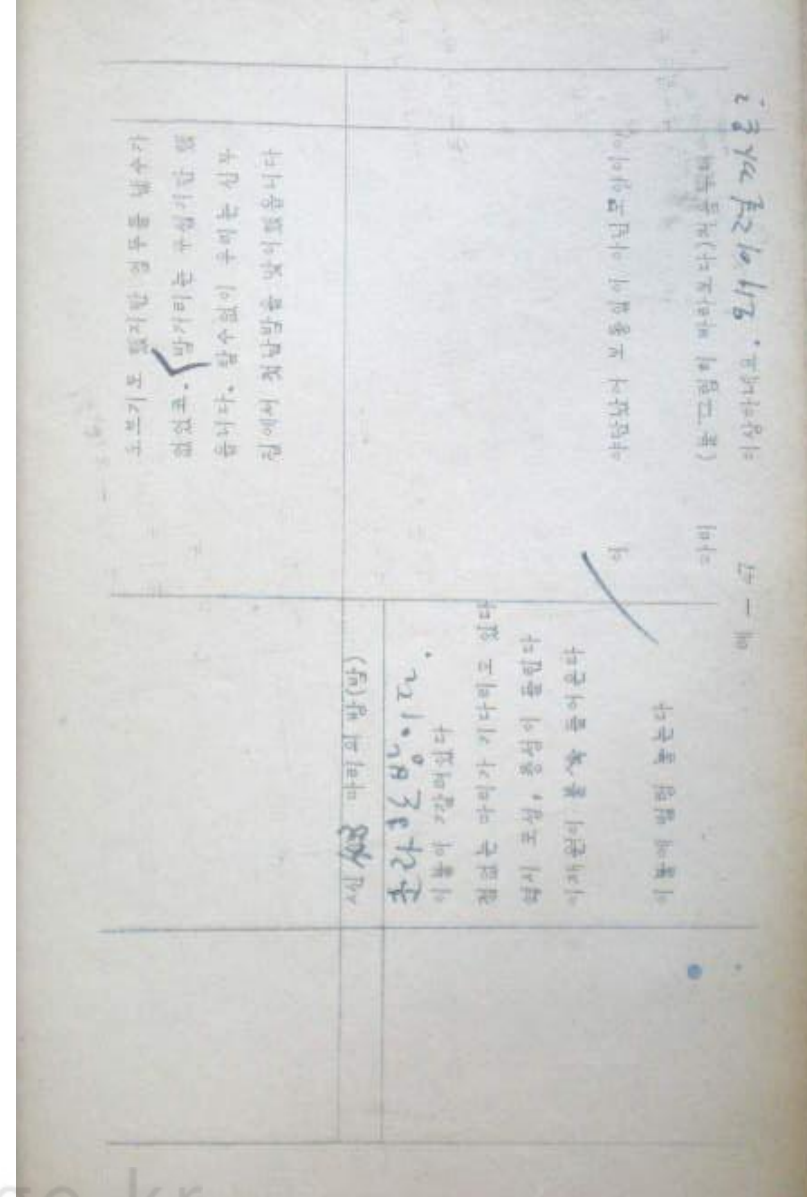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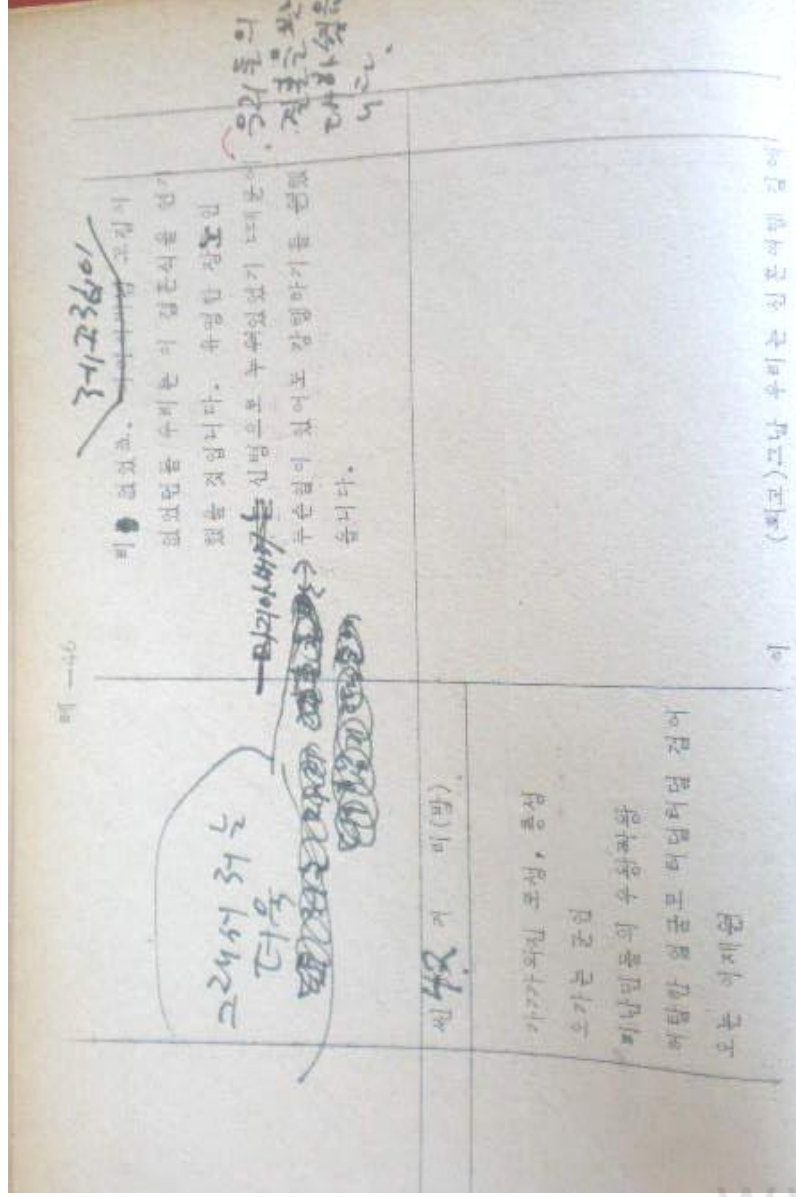
신 41 피상 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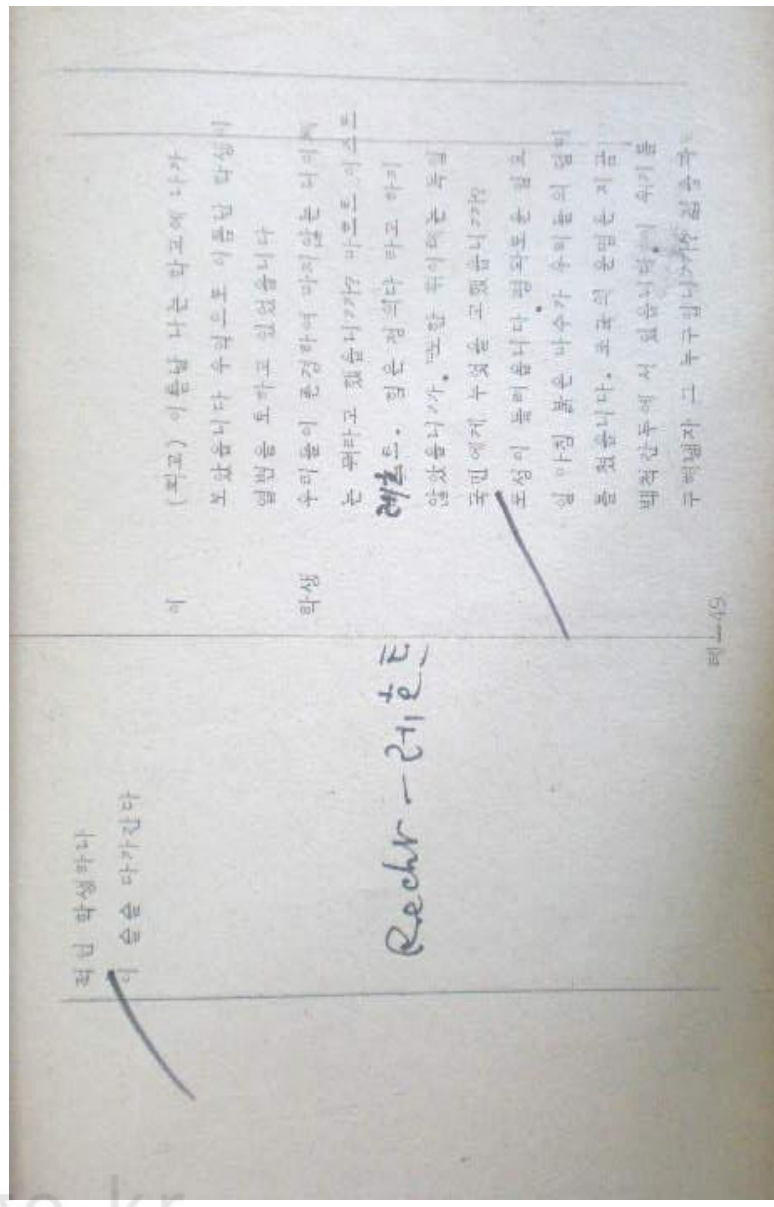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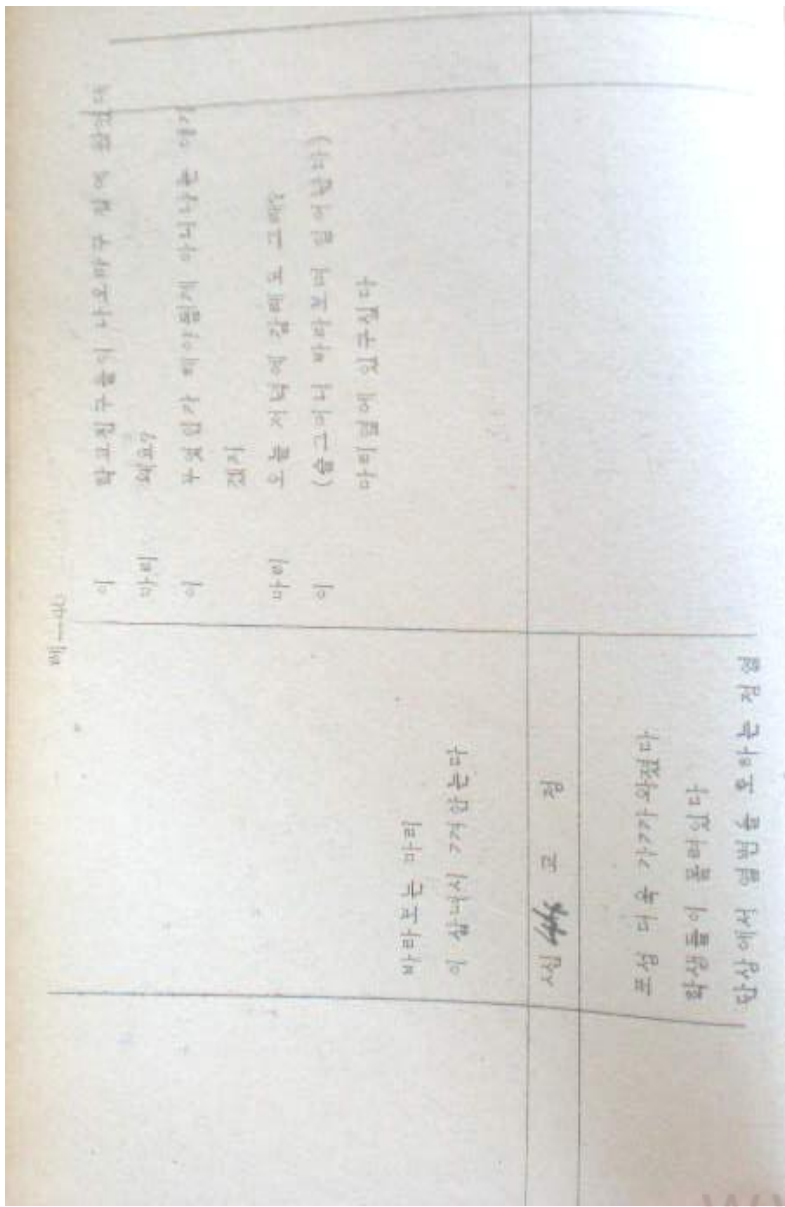
추 * 이사말씀 이거.. 누굴 잘못여구
 이 백두 무슨 얘깁했어오 그레
 10려념을 기다리던 니다. 얘기좀
 해야될거 아니냐구 그랬읍니다.
 추 될기나려?
 이 6.25가 워진 바프 333 유린
 오 비인결혼을 했 습니다
 어림소, ~~와진~~ ~~그런~~ ~~유~~ ~~어~~ ~~인~~ ~~어~~ ~~장~~ ~~호~~ ~~에~~ ~~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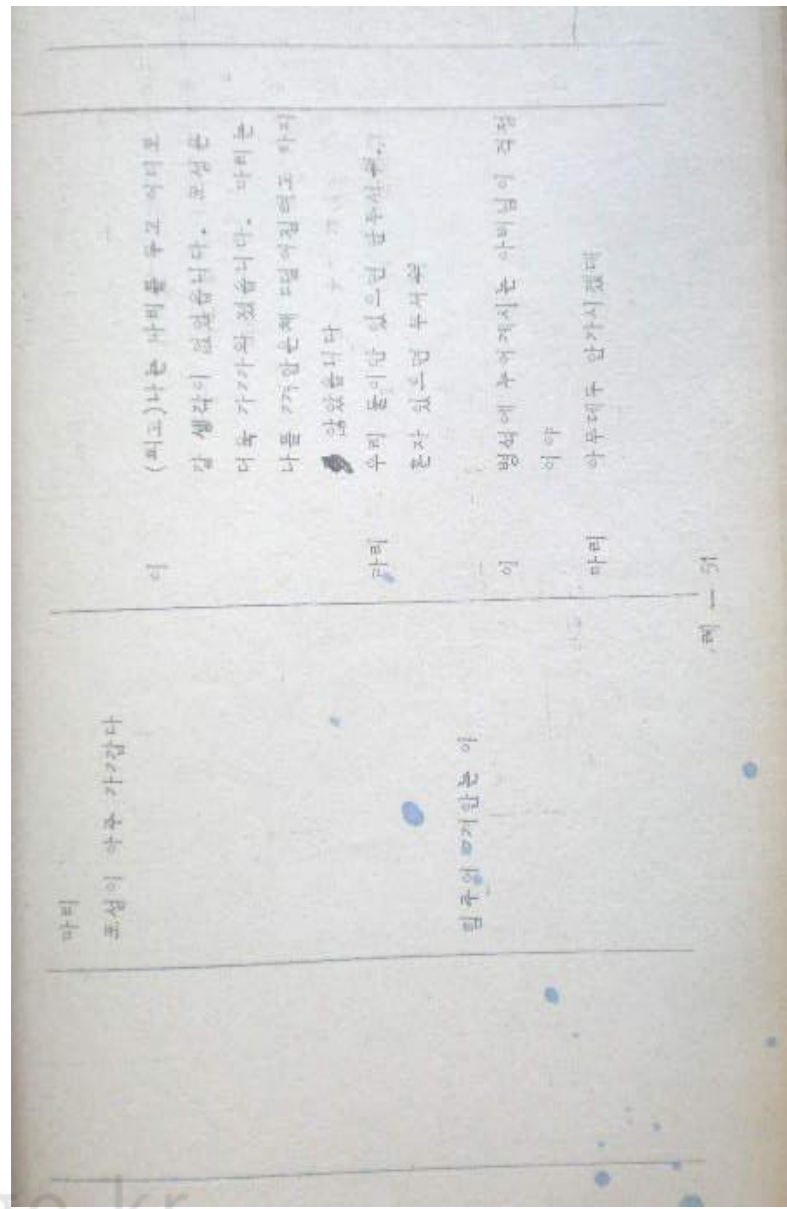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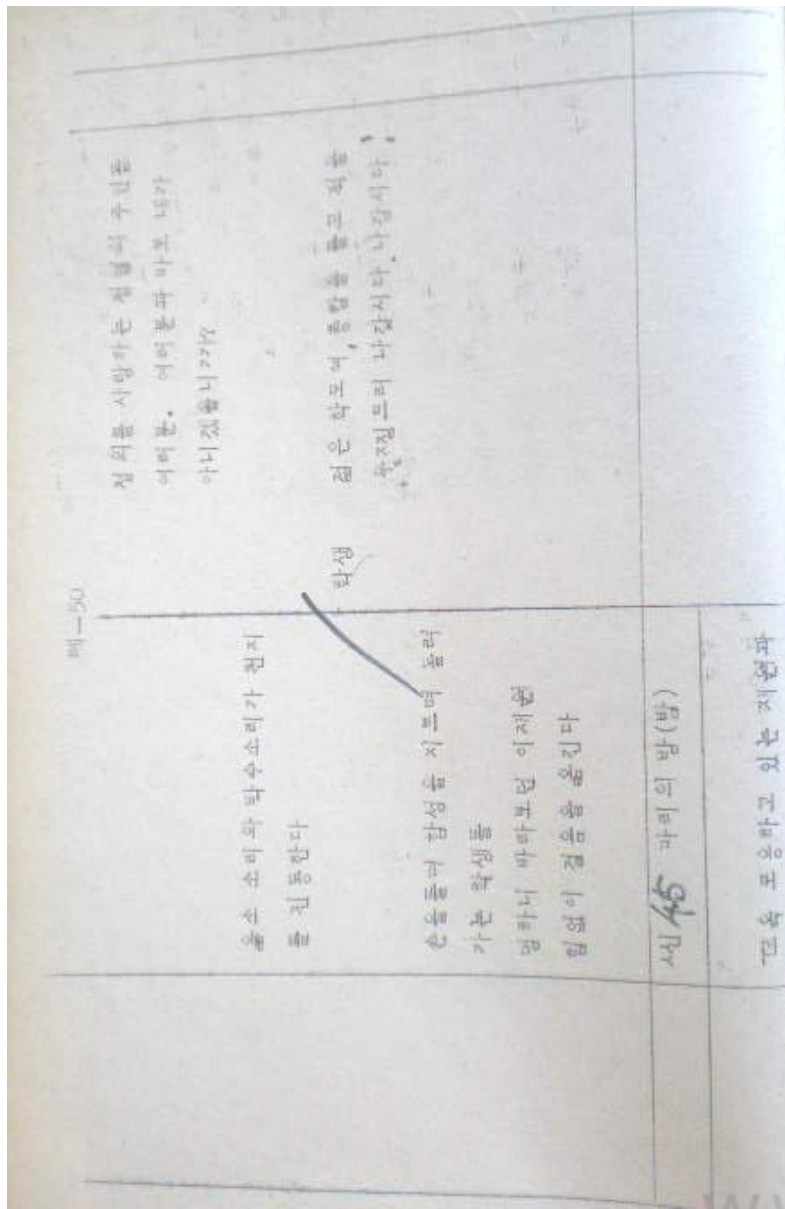
이객이 쓰는 결혼식장
 앞가 가 거 련 씨 의 갑 작 놀 란 다
 꼭 있을 만
 신랑 이 재 원 의 신 부 상 마 의 위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
 아늑한 곳에서 이따금 초성이
 들려온다.
 신부가 신랑에게 시계를 채워
 준다
 지켜보는 양가의 아버지, 어머니
 우레사가 시작된다
 이 때면이 진행되면서

이 의뢰고 납비가 됐다고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결혼식에 왔을

헤--45







백 - 52

시 46 하장포의 밤

석관할 하장포가 눈을 거결박
다
초라한 밤이.

시 47 지 리

하장포 고향너석들..그렇잖아도 가산할
백성들을 난리로 괴롭혀?
이 어디로 귀난을 가시크 모두들
 • 더더나서 장안이 흥 비었습니다
하장포 병든 몸이 어둠가 더피를 조각을
 지어줬으니 내 이제 한꺼는게
 없라 너희들이나 더더나
마미 아버지지가 안더라치면 우리누
 안더나겠어요

시 48 마리아네 집 마담

임빈준의 대열이 들어와 있다
붉은 깃발이 도처에 나부끼다
물때 다녀보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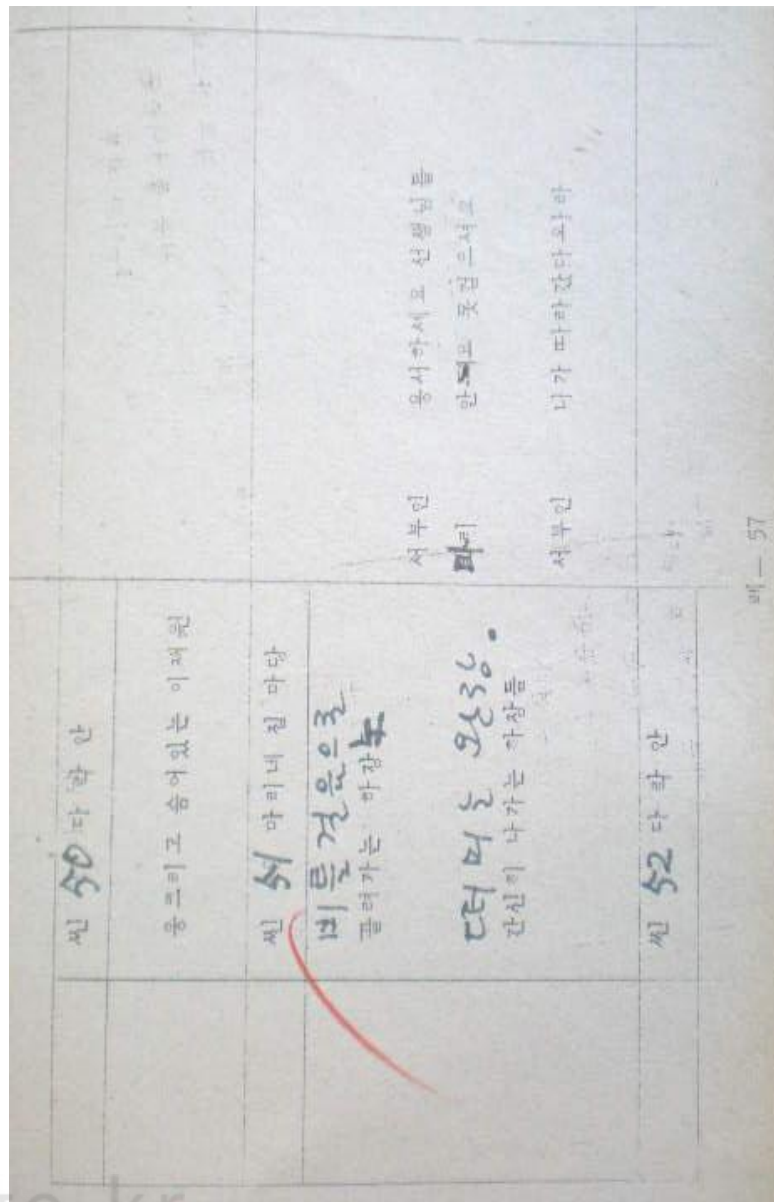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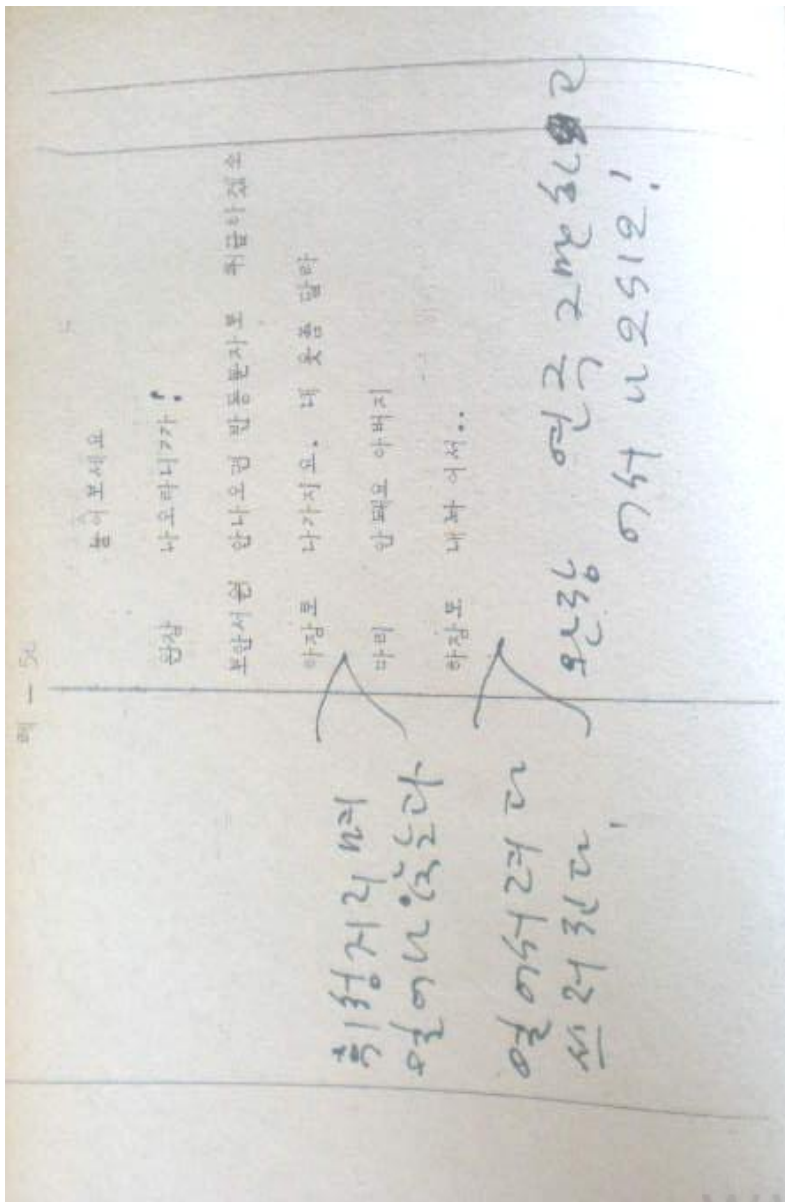
시 48 마리아네 집 마담

붉은 완장을 두른 사발과
포입서원이 들어온다

이 (회고)공산군의 서울점령은 더우
 나도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예를 끼치지
 않는것 같아 사람들은 침소포 돌
 안가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며칠후

| | |
|---|--|
| <p>마리의 여퍼니 서부원이 담판
한다</p> <p>밤을 가리키자 그림도 간다</p> <p>씨 49 아감도 밤</p> <p>다락으로 열린 뚝어들이가는
이자원</p> <p>마리가 감고를 하는척 한다
눈이 피막 걸린다</p> | <p>관장
아름도길로 신고요</p> <p>서부원
에 광고 있습니다</p> <p>원장
여미요</p> |
| | <p>원장
아감도 좀 나오시오
(누어서 레만호)누신리요</p> |

| | |
|--------------------------|--|
| <p>관장
아 감심이 일어난다</p> | <p>보안사에서 왔수, 눈이 붉게 있는데
가 좀 감시다</p> <p>마리
아버진 석담집부터 불구 계시오</p> <p>보안서원
밖에 나가지를 못하시오</p> <p>아감도
해망후에 재림에서 왔어요</p> <p>보안서원
나오시오</p> |
| | <p>마리
갑 떴요 아버진..</p> <p>서부원
눈이 보십게 있으시거든 여기사</p> |



페이지 50

대문 달기는 소리가 들려 온다
 눈골 두루 너머오는 이따윈
 문득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부인이 몸을 던다

이 너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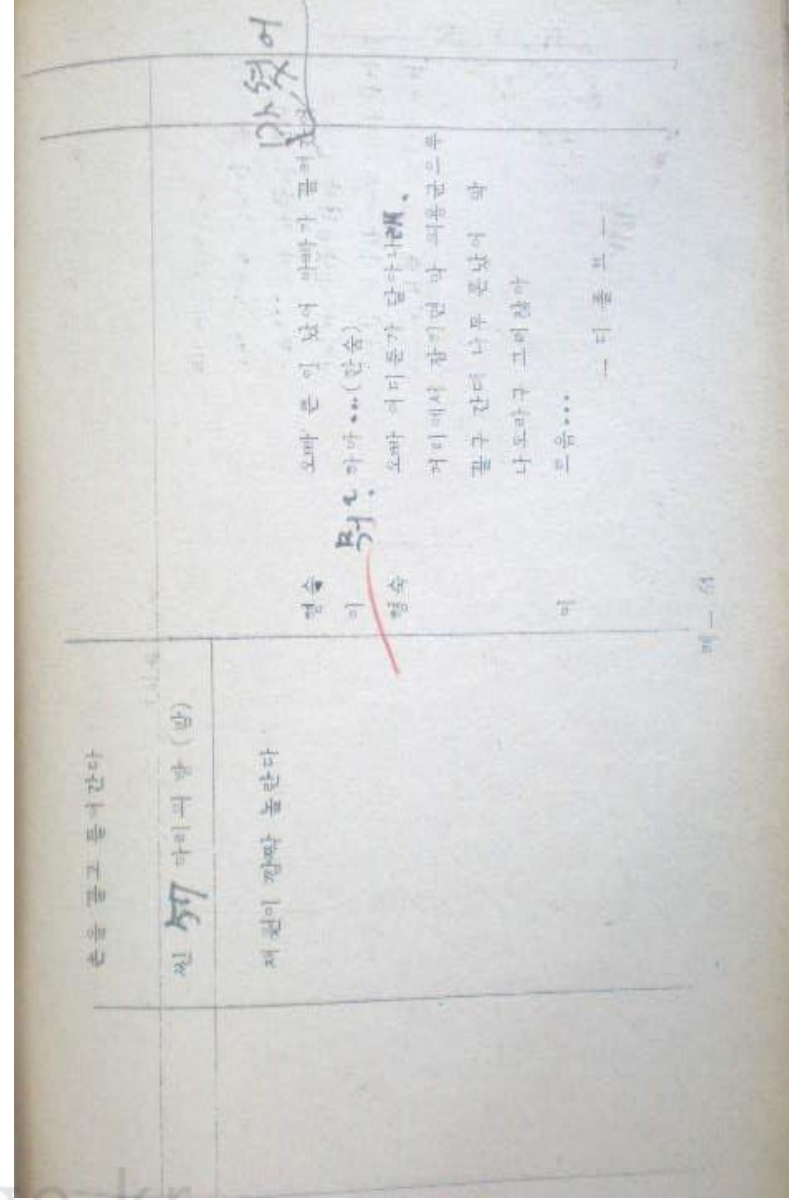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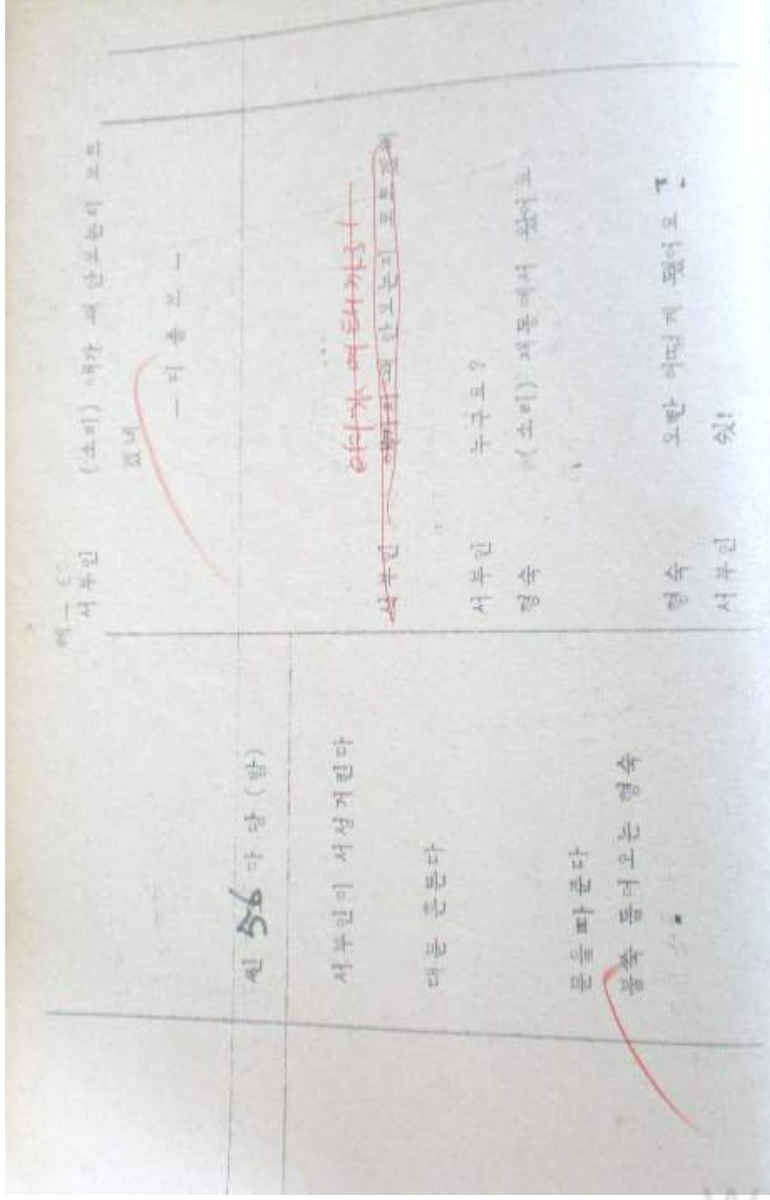
씬 53 카상노 역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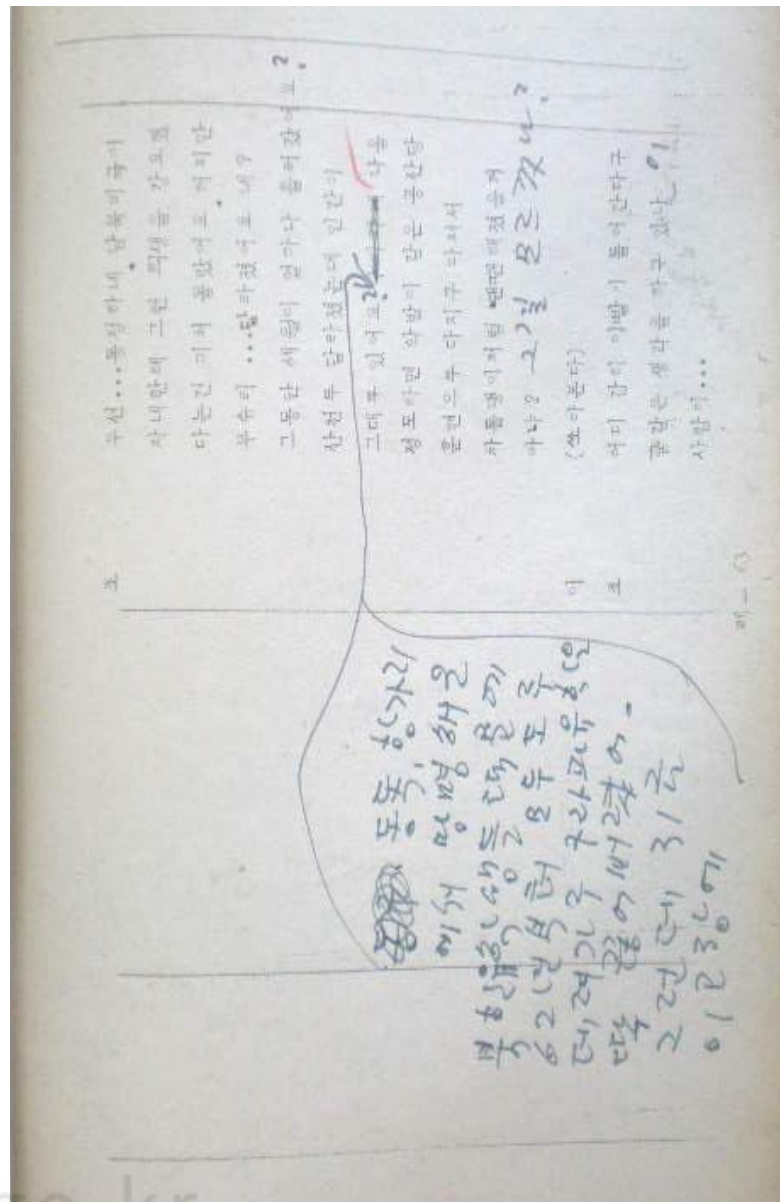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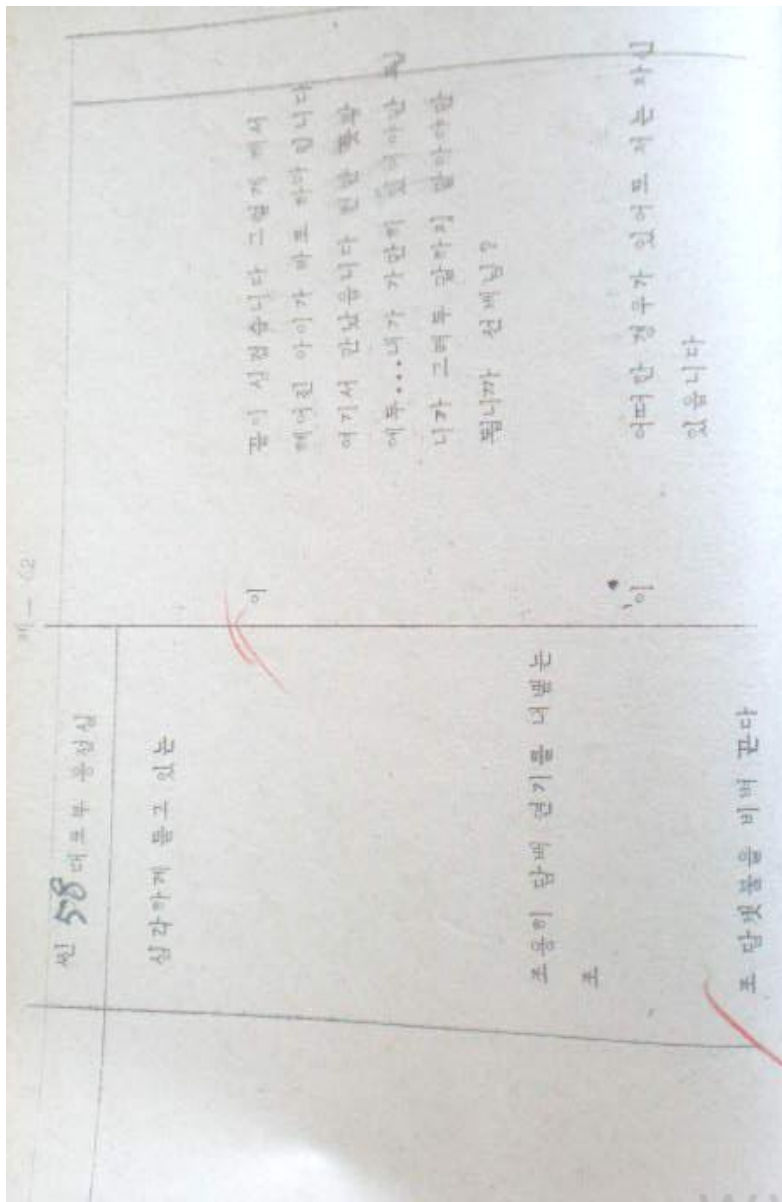
51314 4215
 씬 54 마 당

서부인: 여보게... 여보게...
 서부인: 저걸 어떡하냐 파 끌고 갔으니
 이: 부자비한 불쌍한놈이구나
 나갔다 오겠습시다 저두

서부인이 불끈 다
 막 밀어버린다
 씬 55 마이 피 방
 불어 피어 벌벌 놀는다
 — 더 놀고 —
 맘놓이다

서부인: 나가야지 어디를 보든있잖아구구
 밤에 풀어가 술을 손이구 있어
 이: 사알라...
 이: 아더부 거덜꺼 있으니까
 서부인: 술부기 어침있어지
 끝까지 안스리 갈구... 054
 ...늘어나 1/8의 토!





이
 주
 이
 주

이의 모습이 파르르 떨린다
 - F.O -
 59 제네바의 풍경

60 오성 역류한 레만
 오의 분수 (밤)

..
 쌀 단골짜머리요, 만나두 푸른쇠
 허요
 ...
 잘못하면 서쪽두 끝질산다구
 같이 온것들이 서포를 감시한다
 는거 몰마?

61 푸털 밤 (밤)
 건너편에 서있는 이
 뽕이 지게 드뭇질구를 건너
 다보코 있다

62 아마리키의 밤 (밤)
 흥후고 노래하는 소오가
 만장이다
 케게마 서서미 / A2K 하
 길 / 델이미길 화별이다
 화별에 따라 캄아졌다
 서 두의였다 하는 아마리키
 길

| | |
|--|---|
| <p>친목질이 돌린다
마미 긴장한다
말는다</p> | <p>합포구 ...너 저에게로
하마리</p> |
| <p>신 63 장근일의 밤 (밤)</p> <p>쓰라려 김숙이 누워서 전포
를 걸고 있는 상
의를 푸는 포포우 덕인것이
있다</p> | <p>합
아깝파람 풀 쓰미의 나갑시다
마동부 온과 준비하시오
포방을 하시오</p> |

| | |
|--|---|
| <p>닫는다
쓰아보고 싶은 엄
장 눈을 감는다</p> | <p>임 장
저도 가깝니까?
아니, 엄동부는 밤의미구
계시오</p> |
| <p>벌떡 일어나서 원천의 옷장
으로 간다
포터한 네타이를 꺼내낸다
쓰아보는 엄</p> | <p>창
마동부를 그 속마구 드렸수
말동무를 부합해오</p> |

신 64 마미의 밤 (밤)

페이지 67

페이지 70

손을 잡자간다
순학개 와에 타는 이
차가 뒤편다
익터 포털에서 나오는 손님
들
장근일과 하마티가 끼어
나온다
술을 걸기 시작한다

씬 66 **원화가 (밤)**

오가는 사람
오가는 차
포켓트에 손을 넣그 목욕히
걸어오는 장근일

한발짝 떨어져서 열십의 따
아오는 하마티

씬 67 **판거리 (밤)**

여전히 걸어오는 판근일
과 하마티
장근일과 걸음이 자름
느려진다
의아해 하는 마티

장
마티
장
마티

마티 아픈가?
판근일아프
옛담 생각하 난다
네?

페이지 71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
 66장
 67장
 68장
 69장
 70장
 71장
 72장
 73장
 74장
 75장
 76장
 77장
 78장
 79장
 80장
 81장
 82장
 83장
 84장
 85장
 86장
 87장
 88장
 89장
 90장
 91장
 92장
 93장
 94장
 95장
 96장
 97장
 98장
 99장
 100장

놀라는 마리
 미소하며 돌아본다
 마리는 미소한다
 눈길로 향한다
 신 88 고프나 밤
 중앙역 앞 (밤)

옛날 일본이 침어서 이곳에
 와 공부를 하던 시절...
 이곳에 오셔서 공부하셨어요?
 물렸어요?
 물렸어요 전...
 공부를 했다가 보다부 떠돌이
 무 이나라 저나라를 헤매다
 냈지, 보헤미안처럼...
 열전없는 늑장이었어

장
 마리
 장
 장

장과 마리아가 천천히 걸어
 온다
 나오고 들어가는 무수한
 사람들
 너무나도 괴외라는듯이
 바라보는 마리
 더욱 놀라는 마리

저 사람들, 위에서 내려 나오는
 사람, 자를 타러 들어가는 사람
 ...영복애 되지?
 우리 두 안면, 돌덩 떠남까?
 마리...그럴까?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비-7. 장

옛날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특실한 기록고신자인 아버지
 가 지켜주었음직한 이름...
 어릴때부터 배워 영어가 몸에 밴
 사람, 전생미인, 이용까지때문
 에 조선인인 불교인이 소중히
 다루는 사람...
 ...
 장 아무부 몰라, 뭐더나버릴까?
 ...
 장 자 사람들 자유로워 책감아?
 감시하는 사람부 없구...
 ...

비-7. 장

볼아다 본다
 을상이 되는 마리아
 상대방
 마리아의 종을 삼키듯이 한참
 바라보다 단호히 그계를
 찢는 마리아

비-7. 장

마리아
 저렇게 삼구실감아?
 마더크 싫어코 원?
 ...
 장 한참 바라보다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발길을
 돌린다
 계속
 ...

비-7. 장

3집

(더플루)

원 69 프송가(밤)

장파 아미가 뽀칙에 남아있다
장담 아미들 피쉬는다

장 파 아롱푸는 원래 고향이 어디더라...?
장 파 남만부제요
장 파 어디야?
장 파 저 숲이예요.
장 파 그려놔서 담침을 단강파게 용기뽀
장 파 은 사침... 농하
장 파 (고개볼 속인다)
장 파 고향이 그림같아요?

페이지 77

페이지 76

장 파 아련... 혼잡하잖아?
장 파 뭐가?
장 파 긴기루 없구 먹물것주 없는 남포
장 파 선에서 고생하는 임민들이요
장 파 관... 대략에서 남포선사람은 맘났
장 파 다범서요
장 파 ... (놀람다) 네
장 파 아는 사람이던가?
장 파 ... 포르는 사탐이었어요
장 파 뽀 커버 왔대?
장 파 모르겠어요
장 파 함범 뽀임뽀끼, 다시 만나서 만나
장 파 지... 남만부사람 만나는게 ~~뽀~~
장 파 담음 위험 임민데 ~~뽀~~어서 못담다
장 파 는 소림 압력지

.....
 내가 허락하는거니?가 만나라구
 원하는 사람입가, 남조선 행림이
 이더다가 물어보구, 우리입뎨공화
 국 자람두 좀 하구말야, 다 애국하
 는 일이 아니겠어?
 김이 나서 그메요
 (웃으며) 혁명투사가 접이 남디~~만~~
 되나 조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들 못하리... 담약에 마리를 풀
 파라는 논치거든 다하구 만나게
 해죽두 좋아, 서우 불포>거린데
 뉘... <니조한다>
 (김의는 불뚫 쳐다본다)

하 장
 하 장
 하

백-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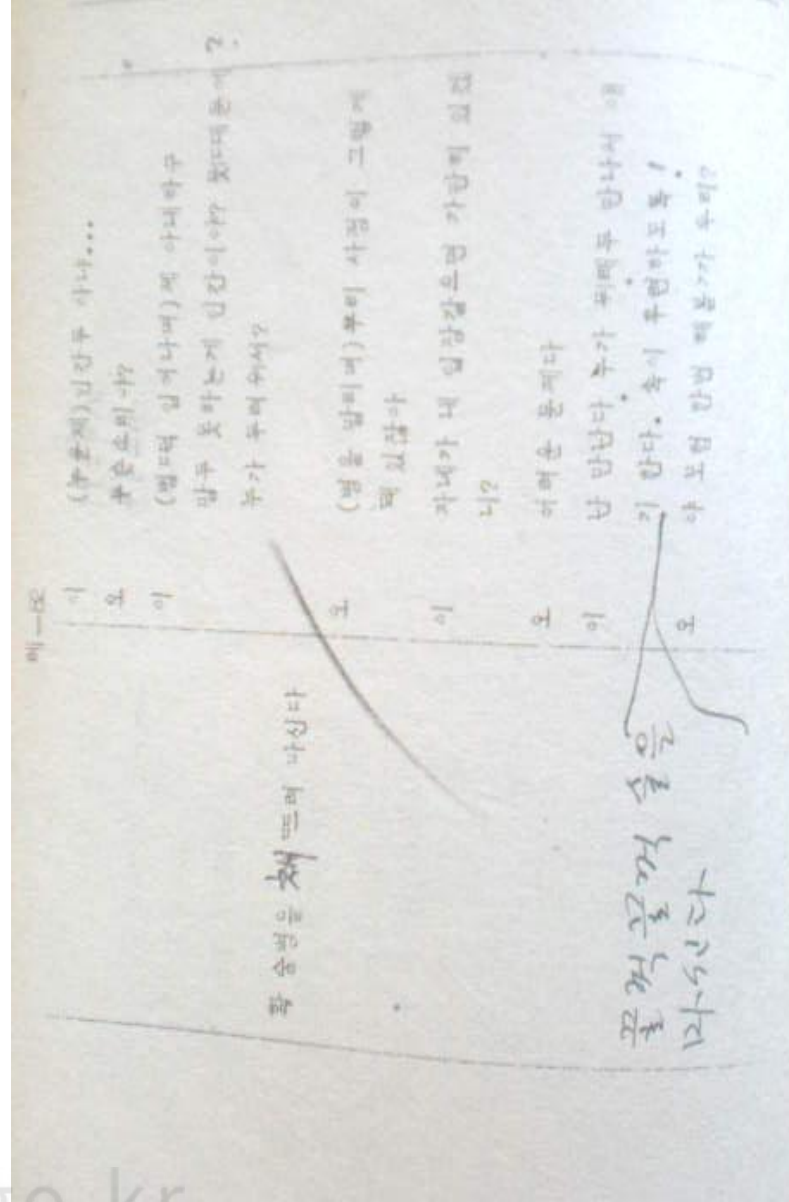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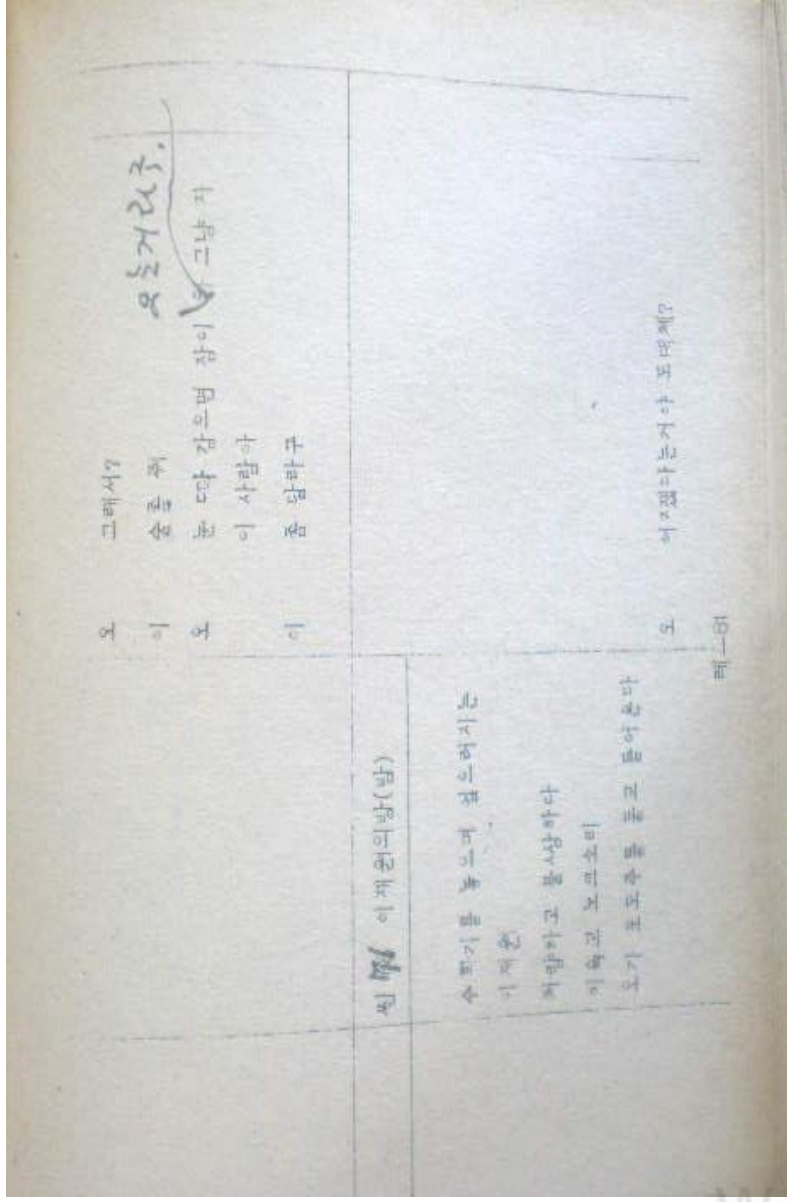
백-80
 김 (거개를 훌훌 치며 일어났다)
 집대기담구 대답하께 정근메보라
 구... 안약에 또 만나거든말야

오 (정 좌포) 자나?
 알토수
 (정 좌포) 자나?
 별신데... ~~이산리~~ ~~이~~
 이 ... 잠이 안온다

백 79 오대석 의람(밤)
 더 불빛드에 '자'는 오부부
 야기됨대가 마로 불에 있다
 김 환넬 소리,

백-80
 김 (거개를 훌훌 치며 일어났다)
 집대기담구 대답하께 정근메보라
 구... 안약에 또 만나거든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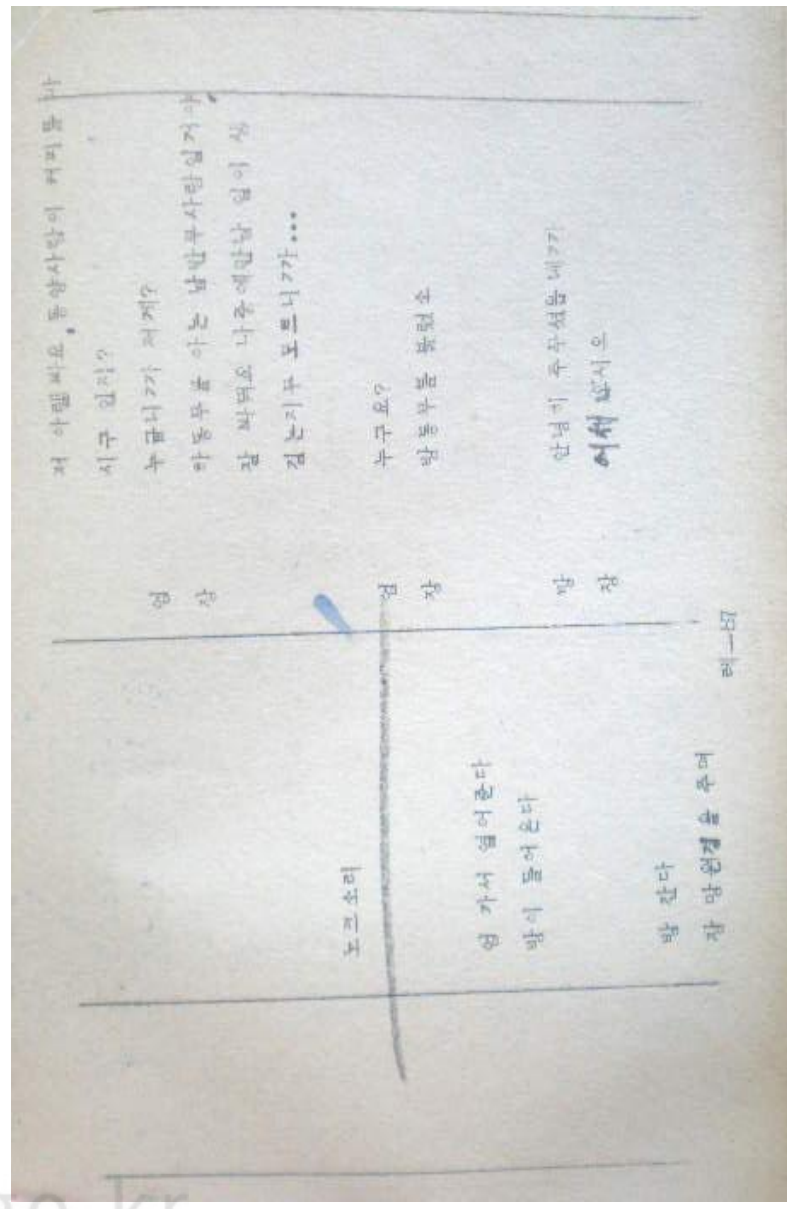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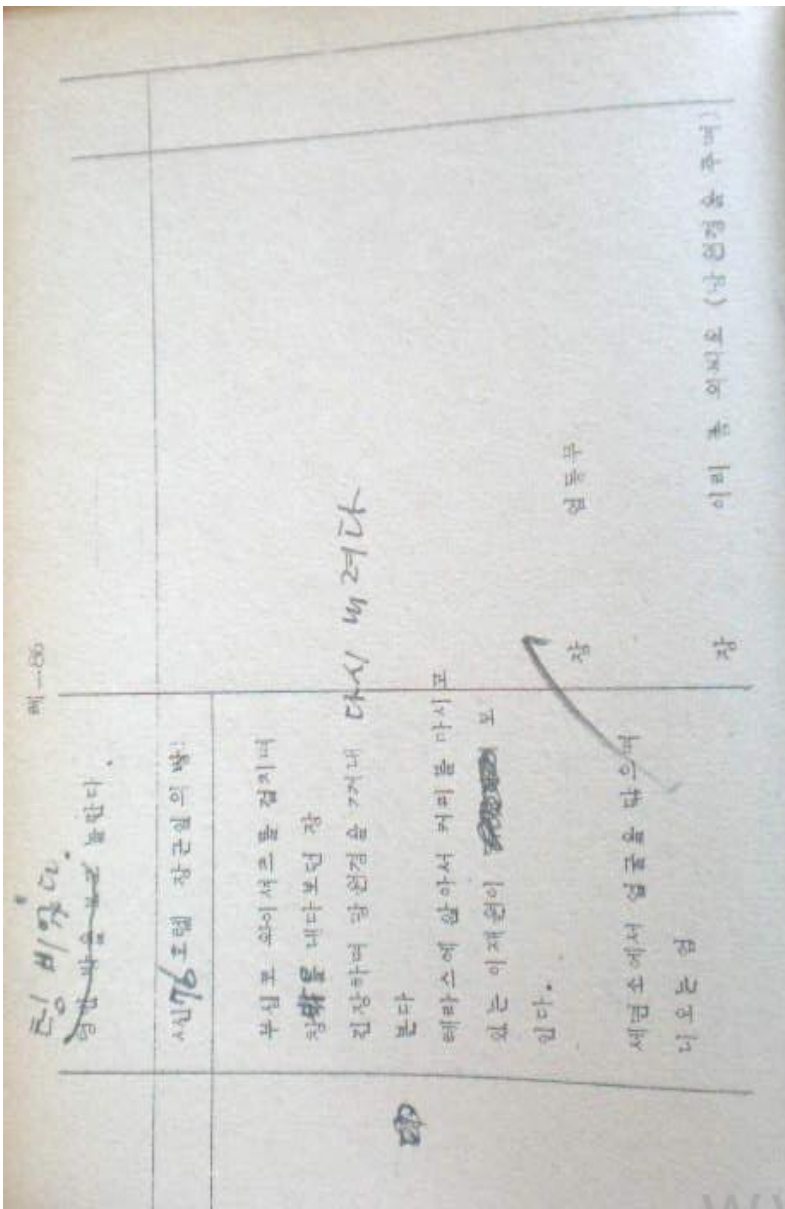
오 (정 좌포) 자나?
 알토수
 (정 좌포) 자나?
 별신데... ~~이산리~~ ~~이~~
 이 ... 잠이 안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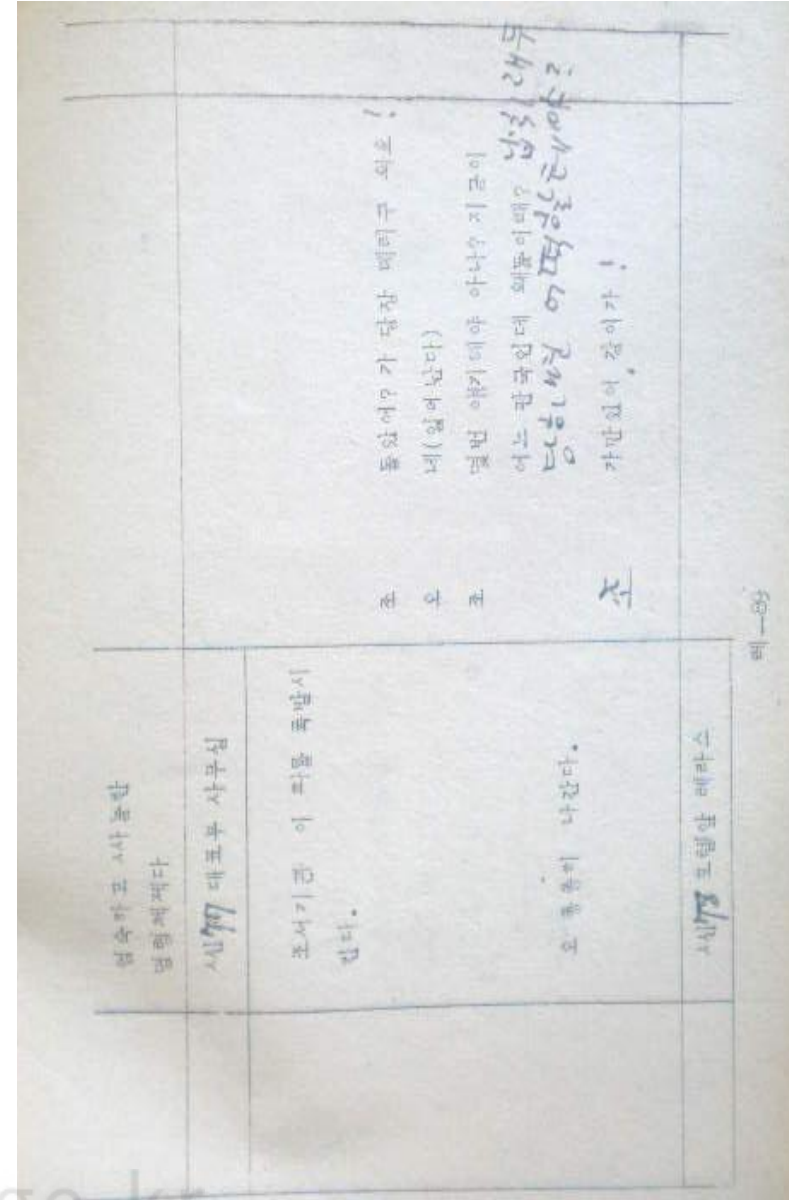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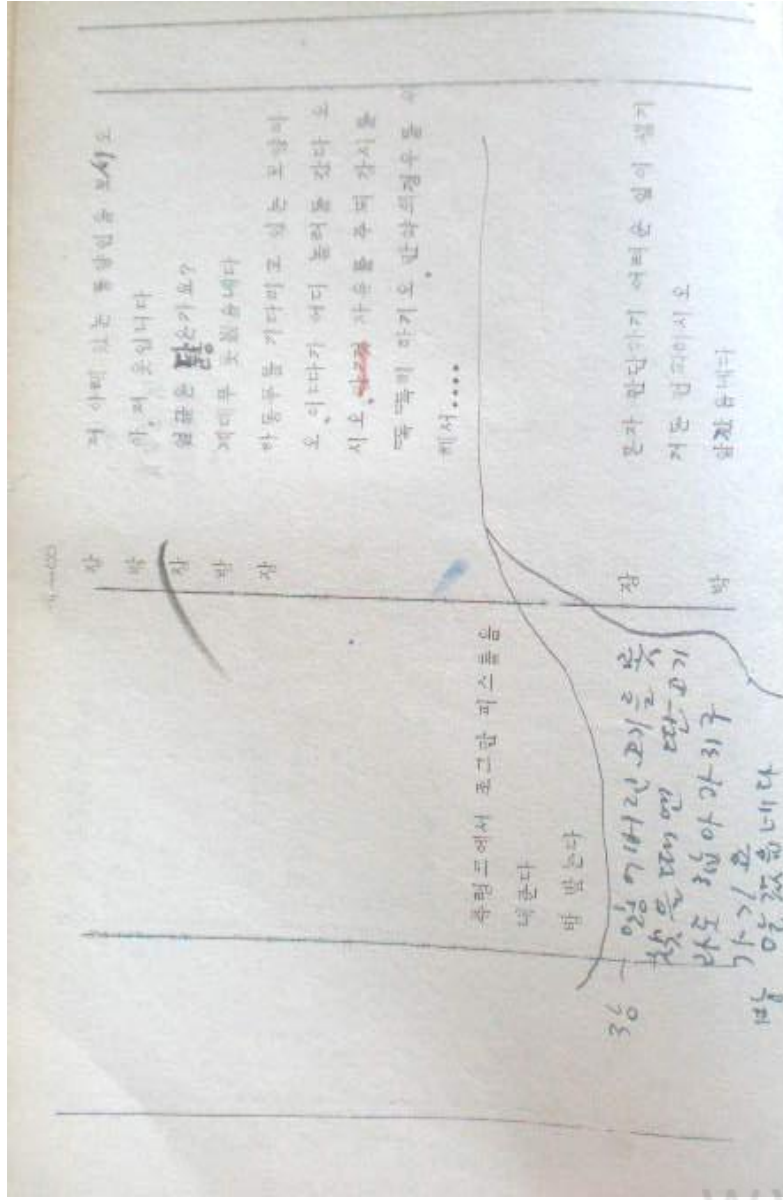


모험이 끝이 났어 돌아갈때가 언제?
거기를 잡기 위해서 말야, 어때?

| | |
|----------------------|-------|
| 이 영철이 자야 본다 | |
| 선 72 (P.I.) 레프스키의 독장 | |
| 영웅이 본다 | |
| 한없이 올라올수록 내는 | |
| 레프스키의 연봉들 | |
| 목동이 긴 남편으로 본다 | |
| 신으로 계속으로 연 하늘로 | |
| 올려버리는 신이로운 모험소미 | 제-153 |

| | |
|----------------|---|
| 선 73 유네브의 하필 | |
| 선 74 모델링 : 레프스 | |
| | <p>손님들이 열서 열사람 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택시가 약간 지나가서 멀는다
악계원의 표식처럼 제 따라온
다
자리에 앉는다.</p> |
| 선 75 이재원의 환 | |
| 속 편을 열고 들어다보는 | 제-155 |





백-50

손님의 그때 불었다
이 석삼거리다가 포렘함으로
물어간다

백-51
포렘 그린

참근질 심. 밤함속 야마리가
아침을 먹고 있다.
잠과 밤이 유별나게 매력할
표정이다

방

장

방

장동부 오늘은 편광은 중 하구
실은데 이락해주시겠은네가?
어딤 가구 싶어서 그러시오?
아침 저녁으로 내다 **뵈**는 태양도
에 푸름실 다다다치는 광광성

백-51

참

방

참

막

백

백-52

이 "꼭 립립 타오구실습니다,
배물 타구실다업 포오갈누루 세게 **뵈**
투우부 가는 포스가 있음겨요,
본투 열아인물결, 가보시오 입업...
학동부 수미 갖다 옵시다래
....
포오갈누림 비는고 올터 배물 이문
극장터겨요, 그림에 의 질 다투갈
아요! 순박한 농가의 신 필이
어디던졌인가 아농투우 립립 구
경게두는게 좋을겨요,
집... 잠 주 싹진 라원으럼 뜰
집어쇼
웃따 놓은 구경아다보워 그집 거
것 타 잊어버리게 라원 야님네가

레-52

| | |
|------------------------------|--|
| | <p>그러지 발쿠 잡시다래 하동무
.....
물든루우에서 조금 더 가면 시음
섬이라 마리의 눈이 시물 쓴
교장이 유명하지요</p> |
| <p>마리의 눈이 반짝입니다</p> | <p>물속에 세워진것같은 섬이 있
새운 날 생은(31)오
가는거죠 하동무, 네?</p> |
| <p>일방적으로 작정하고 좋아
안다.</p> | <p>하 장</p> <p>장</p> <p>밤</p> |

| | |
|---|---|
| <p>선 80 대표부 점원</p> | |
| <p>차가 들어온다
표가 화를 내며 들어간다
침천히 네리는 이와 오</p> | |
| <p>선 81 호텔 잠근임 밤</p> | |
| <p>잠이 잠가에 다가와 본다
임도 다가와 본다</p> | <p>섬
잠
섬
잠</p> <p>없잖아요...
또 나타나겠지
동안 보내서 괜찮겠음니까?
방동무를 그렇게 엄청하게 보시요?</p> |
| <p>레-93 두</p> | |

레- 94

권리가 온 돈다
한참 들고 있다가 눈을 감으
며 초라에 깊숙이 놓는다

씨 **경** 대표부 정현

이가 침통한 얼굴로 서 있다

오 들어가자구
이 사표를 써야 할까봐
오 무슨 소릴 하구 있는거야?
이 산단갑길루 할수 없니? 잊어버릴수
외 **박** 어?
이 잊어버릴터구 애썼다.
그런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잊어버리는것이 비글하구 워선 참아서

오 이

오 이

오 이

오

레- 95

남배를 써낸다

말야
이 글은 또 뭐야?
아버지가 남북림파 난 우리 양국이
남하구 있는 가혹한 시련에 대해서
맹렬한 반항심을 갖었었다.
이 새끼들아, 누가 이 나라를 두
조각으루 갈타냈니?
원상복귀 시켜놔라! 그렇게 촉박태구
외치는 사람이 있길 바랬어.
있더군, 그래서 외부부에 들어왔다.
내가 케지올려 주 람야
처지만 후린 하위등서기관 아니냐..
야투침주 없잖아

라이라를 꺼낸다

오, 라이라를 다시 꺼낸다

이 그해.. 큰 소리의 칩 입장두 아니구
쳐 뵈자 들은척 할 사람두 없다.
슬픈 입이야

이 허지만 한가지 힘은 있다.
하마리를 만나서 터놓구 얘기할말야.
너는 왜 그렇게 있구 나는 왜 이렇게
있냐...
오 니려구 나려구 옛으루 물야갈수
이 없나, 우리 사이에 두 불타란 장벽이
있느냐, 그 강벽을 부서뜨릴수
없느냐? 외다면 우린 무것을 어떡
해야 되느냐-

라이라를 정한다
오. 꺼낸다
엄기를 맺으며 먼 하늘을
내다본다

오 ... 아무것도 못보지...
이 (침입) 그런 심정어...
오 231악이다, 더 살아...
오 4호...
오 아 재워야, 네 정될 누가 볼드냐,
상대가 상대다 그려야.
오 부흥에서 이 머나먼 구박파두 파들
꺼리린들 다져지구 혼령 띄우, 당소
절에 충실하리라는것... 알구두,
남는 일 아니지
이 ...
오 자네가 섬득한다구 넘어갈것 같아
이 지글 의서

레- 97

이 540

포럼이 곧 두 들어가 볼래 소린 왜
했니?
오 (웃으며) OOT의 손 - 포네미
생각이 나길때 그때 봤어, 사실은
엄숙하다
이 너제는 이상한 자신이 있다,
그애하구 나하곤 통할수 있다는
자신의.. (열손 올리며) 생각해
보라구, 사랑하는 남녀간에 두
통할수 없는 남북간의 격려라면 -
땀 사람들.. 무슨애기가 통하겠니?
포 앓을 안들어 오나?
오 네

포가 나 ~~와~~ 서 있다
들어간다

포 이

부슈리 다 들었어
절 도 화구세요 심배님
부부간에 통하지않는 인종이 있
읍니까? 어박이와 자식간에 모든적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만나 눈을 들기버라고
생각하십니까?
...
포 이 절 좋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곳에
서 있는가 참 압니다.
분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외교관
이라는것을 인식하면서 행복하겠
습니다.
저를 제 아내와 합된단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99

- 제 - 100

| | | |
|----------------------------------|--|--|
| | | 남북간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 (요용리) 남북마을의 거리
의서 |
| 어게를 압고 들어간다 | | |
| 친 33 하마리의 방(저녁때) | | |
| 열으로 누워자고 있는 마리,
밤도 자다가 고개를 든다 | | |
| 입이 답다 | | |
| 마리를 물어다 본다 | | 어떠나 없써 어두워졌어 |
| | | 아동루
.... |
| 친 84 장관일의 방 | | |

| | | |
|--|--|---|
| 섬이 망원경으로 테라스를
내다보고 있다
녹르소리
방입이 들어온다
서복을 보며 무엇인가 쓰고
있는 잠
스텝드가 뛰어들다

람프웬을 본다 | | 오늘은 학교로 못나가고 쉬었습
니다. 귀송함께다.
잠 했소. 이걸 보시오.

도오장누루 가는 관경안내서요.
남자와 시간을 작정하시오
우리끼리만 자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
| | | 람 |
| | | 잠 |
| | | 창 |
| | | 남 |

- 101

물론!
그 친구를 끌어내시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상관 없습니다
암간음니다

10
10

아프오

필하고 나간다

씨 85 푸원실

수신하고 있는 통신사
답신을 하프 나간다

씨 86 대표부 사무실

통신사가 조서기 관에게
서류를 갖다준다

통신사 본부에서 밤급들어온겁니다

조 약아 이거 일터남보아냐?

통신사 그럴습니다

조 푸더여 귀박파여서 두 자관 통는다
성공했습니다

통신사 폭침의 마이스터 피자가 통신사에
돈을 쏘우게 됐습니다

김대사 (옆다가) 음... 금성사라는데가

103

주 임는마

조, 데사 밤을 누르한다

씨 88 데사 밤

조가 들어온다

문물지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 • 윤석진 321

배우 106

선 88 대표부 사부집

조가 나운다

오, -운다

조 오 무슈리 동덕학교 나가나?

오 나감니다

조 오 이북아이들이 무슨일부 와 있더?

오 오 하마리는 동덕학교에서 불어 공부
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조 근사하게 가깝잖군

오 그 아이들이 그럴여유가 어딤어,
정체를 좀 알아낼수 없을까?

오 무슈리학구의 정속을 금하시잖았

조 오 어요?

오 오 조금스럽게 어부포우후 시켜봐,
사고는 입스키지 말구
세 ~~정속~~ 정속에 ~~부포와정속~~ 정속 (중야사)

밤 아.. 이상하다

아 밤 왜 그럭세요?

파 밤 꿈이 피타구 베가 아픈데
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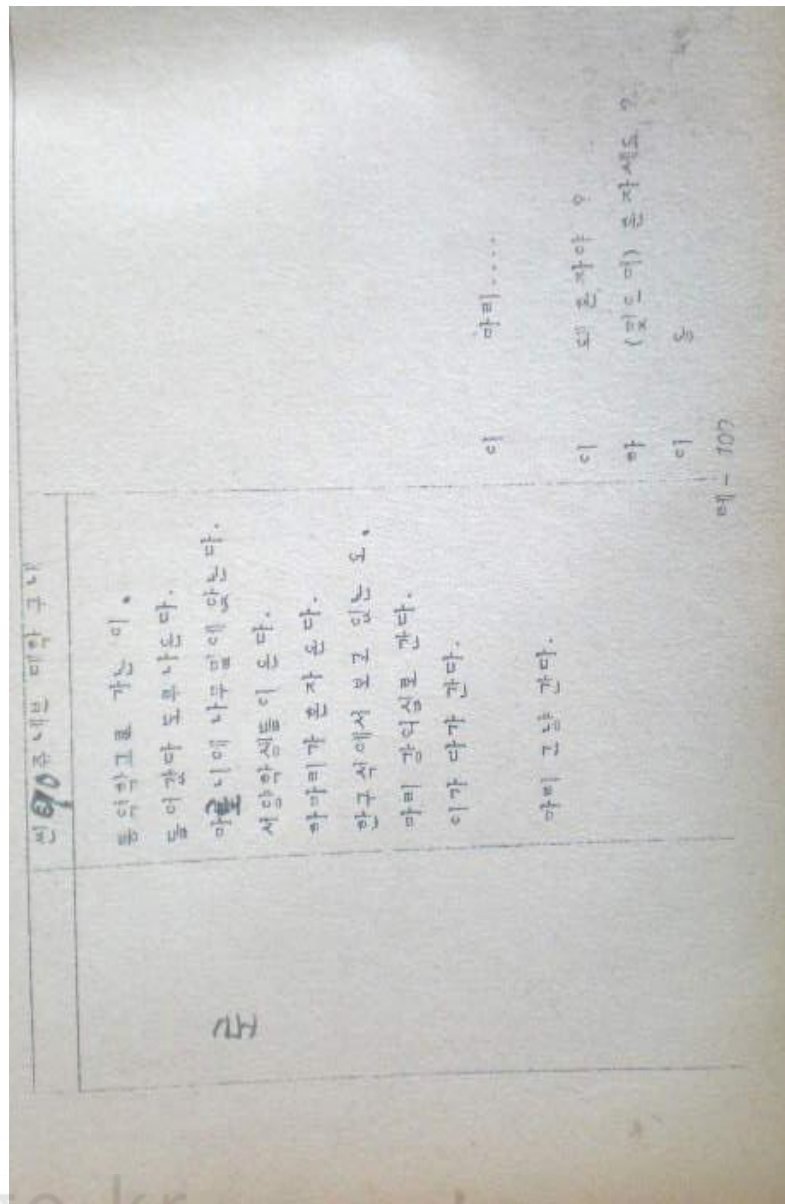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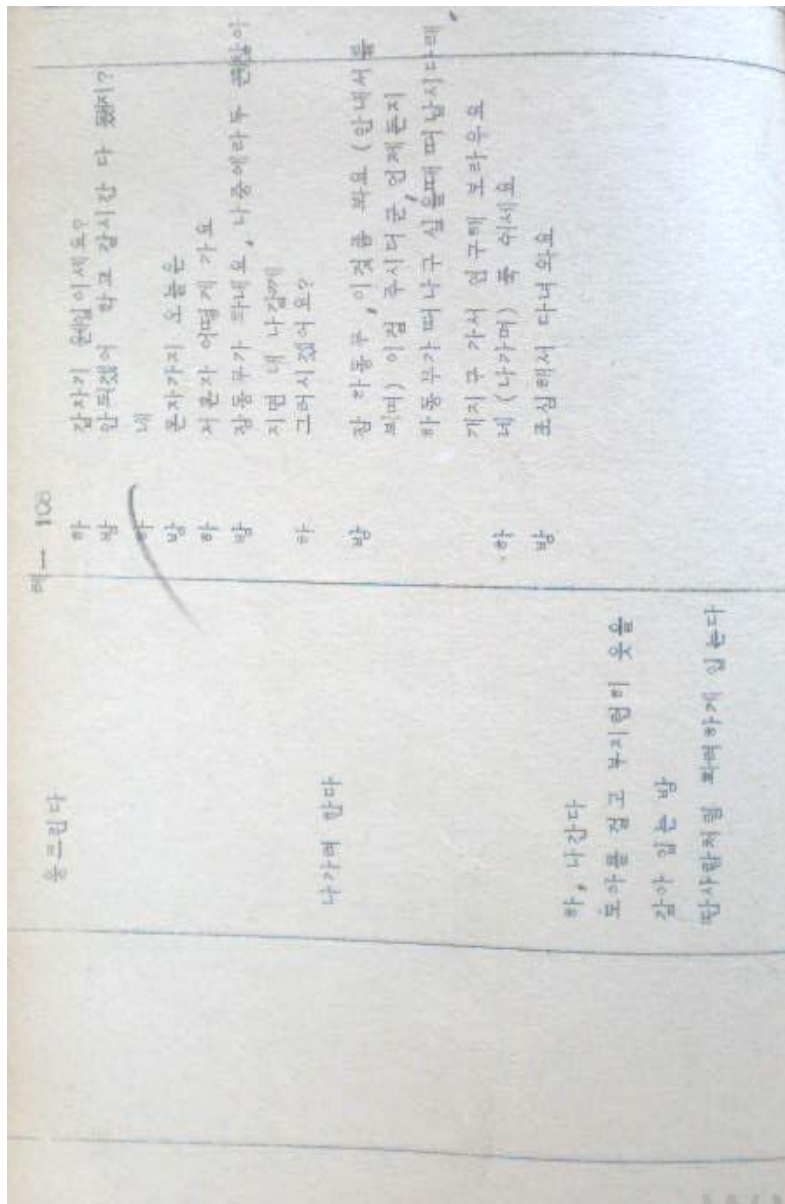
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옷 아이구 벗어

배우 107

선 88 하마리의 밤

밤이 기리개를 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옷을 갈아입던 마의가 돌아본다



아 미신두 ?
 디 말안여 (말배를 깨네 피우 매) 다버
 가 지가 어찌게 돌아갔는지 ?
 리 (생과카타카) 돌아가지다가 기진
 마셨어요
 리 왜 ?
 아 그 어떤 그만 ... 우리 어머니 여편
 이 허구 개세요 ?
 아 이따금 내가 콧다피었지, 두 손은 콧
 도시면서 내 사외 그 카와 관공을 쫓
 팸구 두시지 ...
 아 ...
 디 난두 여편이 잘못되니까구 부른다.
 아 ...
 디 혹시 아리두 아버되이 관아개안하구
 가신다

안심심 생강향나라아
 고>서늘 31.11.21

미안용 권구 **사서**, 우리 아버피두
 마친가지 ... 그런 사람 난쪽 데
 많다, 관공집에서 조소케두 편편,
 국 제전집자사를 용피광두 구반들,
 불 신하더라
 ...
 아 왜 그렇게 그쪽은 대답을 안악지
 이
 디 귀곤있나 ?
 아 ... 편신을 허섯어요 ?
 디 램다가 심때없이 죽었어
 아 ...

아 속고여이 못더안마.
 귀피서 마원권드포 보고 일
 노오
 디가 일어나켜 호소 만다.

113

101 - 175

편리하게 보려고 바트스 이,
보고 있는 바트스,
뒤서 보고 있는 도,
원 92 인 만 곱

이 제원이 고개를 덮어쓰이고
내버린다.
상 제에브 데막원이 보인다.
도가 딱따온다.

도 무용한가 오 보고 있습니다.
귀찮이 패해서 ...

이 고감다
도 자꾸만 다마나터군
이 어쩔 두 있는 초민각마

102 - 177

원 93 거 미

거덜커린 외로이 걸어오는 가리.
초도우원도두 안뒤 와이란 단
렉스.
겉을 올 영주 그 간판분다.
있는 양녀들이 적당하게 공짜
간다.

도 편한 일 아니냐
이 (두 쪽 시꺼) 간재루 팔죽을 공구
오 데려와 커집까?
이 품이 보여?
도 있어
오 쿠우추나나 코비폰 디페두 마나 열거?

제 - 115

| | | | |
|--|-----|----|--|
| | 710 | 카미 | <p>이전이 훌터가는 바람만 남 너
 돌리 돌리, 그것은 사관 사람
 사람 이다,
 되로온 카미의 곁을,
 소로우윈도우 안의 좌장을 앉
 에 었는다.
 언제까지나 본다.</p> |
| | 95 | 카미 | <p>카미의 그때로니 삼태로 누어
 있는 밤,
 녹고
 아픈척 나가 또 아물 없이준다.</p> |

이노복 돌아와

| | |
|----|--|
| 카미 | (돌아오며) 어떻게도 좋 ? |
| 바람 | 응 아귀뚜 안마도 |
| 카미 | 어떡하죠 ? |
| 바람 | 같이 제미 있었시오 ? |
| 카미 | 네 (덜덜하게) 장동무가 애기마
시잖았어도 왜 시용성 ... |
| 바람 | 시용성 ? |
| 카미 | 몸속에 세워진것같다는걸을 말대
도, 바디를 더 보나하면 시를 썼다
는 고장 |
| 바람 | 있 ... 그 리서 ? |
| 카미 | 선생님이 그 군 애기 카미 시는 데
앵글 귀지퍼를 수동 마는 귀속 도부
썼다니요, 적수는 조수 디 수면도 마부
더 낮은 관박에 갖아입었대요 |

120

나 제일군, 우익도 관민 가짜야 겠군도
 아 불리 가봤으면 좋겠어요
 나 장동주한테 사죄해 보지도,
 아 사도놈 관민 어디까지 갔냐도?
 아 노드름 빌려 주겠어요?
 아 오동은 군에 시용된 대기밖에
 아 안됐대시지요
 아 위역민대고 신생 ... 정부도 돈을
 아 개저구 군부아래 따르는 사람들
 아 관에 자기나라 관관직권만 막다니...
 아 냐 나가서 관민 가겠어요!
 아 관동부 ...
 아 배우겠다는 불어는 제저농구 불민
 아 입내까 고격이?
 아 사십은 지가 좀 높았어요

121

나 아니?
 아 온자 가다가 전권이 거미를 줄 군
 아 귀야구 관민이, 피쳐 관민가 산데이
 아 지레 퇴구 있었음이다.
 아 고맙요 ...
 아 죄송합니다만 과동부 ...
 아 (확실함으로 감미 동도이) 기혁민
 아 기혁민이 약마도면 심생관에 **삼대**를
 아 관민, 관민
 아 미안합니다.
 아 (관민자득 가다가) 기혁 기혁구
 아 네?
 아 (백민이) 인제가 마십민 구 단박
 아 후 단박 도놈은 단박관민대까?

아 ... 뵙습니다.
 (필름로) 아들구,
 (관악 놀판다)
 (진진히 마짜로기) 뽀구 꾀든 고 뽀든
 원이 원이로 ?
 아랍이 왜 그 사하 만났다는 얘길
 관희야관 말하개
 ...
 왜 그 때로 ? 장들 구란테 다 얘기
 관짜요 ?
 (고개를 숙인다)
 (조용히 의자와 의개에 손을 얹고,
 미) 늦게 나왔다가까 후연이 봐지도,
 난와 아들구 사이, 들은 들이지만
 아들은 아나가 다된네까

...
 아 ... 뵙습니다.
 (필름로) 아들구,
 (관악 놀판다)
 (진진히 마짜로기) 뽀구 꾀든 고 뽀든
 원이 원이로 ?
 아랍이 왜 그 사하 만났다는 얘길
 관희야관 말하개
 ...
 왜 그 때로 ? 장들 구란테 다 얘기
 관짜요 ?
 (고개를 숙인다)
 (조용히 의자와 의개에 손을 얹고,
 미) 늦게 나왔다가까 후연이 봐지도,
 난와 아들구 사이, 들은 들이지만
 아들은 아나가 다된네까

배-126

이런 각도를 거 알때도 그 사립을
관다시구 예 피자던 재미를 풀기
시구 예 필요야만인 권공권도부 풀이냐
성 앓음이도 같이 각지구 예 단!
(조용지) 앓신타린이야는 권을 잊을
~~이런~~ **생각으로 ... 권대**
은 마시구려

반이 적당보여 잔을 치켜 일으
로 가지 같은 약이
- 예드.오 -

씨 **96** 퇴장줄 가계

이제 원이 투우규를 끄른다

배-127

이 (불어보)나의 그녀가 안감게 알아
줄가오오

여점원 (웃으며)모름합니다 좋아하구알구
요,사람부 몇배가 들겨구오

이 (웃으며 돈을 낸다) **98** **심소**

여점원 감사합니다

밤간것으로 해안다
포티분을 가리킨다
여점원이 내준다

돈을 받은다
여점원 웃으며 **차심리준매**
나오는 이

씨 **97** 이제 원의방(밤)

헤-126

| | | |
|--|---|--|
| 두 누중과 꼬미분는 내놓고 이
위저리 노며 담백을 피우는 이
계준 | 오 | 야 이계 무슨담세네? |
| 노르소령와 동시에 오가 들어온
다 | 은 | (남겨보며) 드디어 뭘 동케시나?
이걸 탐으면 짓단제는 실골이다 |
| 이 피랑줄을 가미핀다 | 이 | 네일 차흔 밀려답파 |

스신 98 달리는 자안

알렸이 혼간하는 이
옆에 앉야있는 학마티

응 르보의 양원이
가자-아-아-아

| | | |
|----------------------------|---|---------------------------------------|
| 몽. 르보의 공원이 가가가와
집다 | 이 | 원입야 오늘은? 여태가긴 후엿
입가를 경계하는 눈지였는데... |
| 스신 99 몽. 르보의 공원 | 아 | 오태간만에 해뵈 뵈어오, 공부라기가
아주 힘들어오 |
| 어린이와 노인들의 후식쳐다
구석에 떨어 차 | | |
| 스신 100 자안 | | |

삼은셋다
가시

헤-125

이 이 그것두 귀찮으니 커니 따지니
 마 아 논문을 올리라던 합수 없잖아오?
 이 이 수리 남쪽예산 제 으뜸을 리울 속
 가 봤야. 권이 있디 자기 이익을 버릴 자유
 가 맘야.
 아 아 그게 좋으세요?
 이 아 나쁘거든
 아 아 북압부에서는 입을 안하던 못된
 리제 돼있어요
 이 아 술통이 막릴정도부?
 아 아 (남의보며) 정키 애긴 할 작정이
 아 아 라면 난 돌아가겠어요
 아 아 정키 애긴 북쪽포다두 남쪽에서
 아 아 더 싫어한다구
 아 아 그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말
 아 아 부러가 싫어요

이 이 (서서 웃으며) 옛날의 마티 그대
 아 아 도구나. 이따금 나쁜 북쪽 ~~남쪽~~
 아 아
 아 아 내머서 걸을까 중?
 아 아 ~~응보랑~~ **응보랑** 그 ~~노들~~ **노들**을 보마구.. 랑포의심은
 아 아 편애가 심했던것 같아
 아 아 네?
 아 아 여기어란 이렇게 한판만 통경
 아 아 구기후와 입심을 주시구 한판도
 아 아 켤 후심했던것 같아

이 아 아 ~~정키 애긴 북쪽포다두 남쪽에서~~
 아 아 ~~더 싫어한다구~~
 아 아 ~~그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말~~
 아 아 ~~부러가 싫어요~~

아 아 ~~정키 애긴 북쪽포다두 남쪽에서~~
 아 아 ~~더 싫어한다구~~
 아 아 ~~그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말~~
 아 아 ~~부러가 싫어요~~

이 아 아 ~~정키 애긴 북쪽포다두 남쪽에서~~
 아 아 ~~더 싫어한다구~~
 아 아 ~~그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말~~
 아 아 ~~부러가 싫어요~~

아 아 ~~정키 애긴 북쪽포다두 남쪽에서~~
 아 아 ~~더 싫어한다구~~
 아 아 ~~그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말~~
 아 아 ~~부러가 싫어요~~

| | | | |
|------------------|---|---|---|
| <p>해-1
하</p> | <p>셋날처럼 밥을 잘 하시는데요,
어린 거를 막 잡아 드덴... ... 3개월이 가
어서 따라다녔어요
프르..그럼에 그 뒤엔 똥이러기가
없었어</p> | <p>똥처럼 귀찮다.
담배를 가져다 권해주는데
불을 붙인다. 가담키 본다.</p> | <p>하 안 피주세요
이 셋날하구 조금후 따르지않구나
하 안 그럴업오
이 네 눈엔 그렇게 봐
하 여기 오매 외를거예요?
이 나라의 녹을 먹는 몸인데... ... 3개월은 키 얼마
진.. 집파 안 남았어요 ... 되기도 싫어
<i>연주, 1회 남지 몰라오
가르니 100년 가를 거예요</i></p> |
|------------------|---|---|---|

| | | | |
|--|---|--|--|
| <p>이
하
이
하
이
하</p> | <p>누가 카리함테 병력을 내리냐?
그럼거 알아서 똥 하겠어요
그 여자?
응 (포웃음이다)
그럼 누구야?
백가고파요 귀를 먹어요</p> | <p>입어났다.
개에 쪽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지켜보는 눈은 도합 넷,
파라하게 차린 방형옥기 ... <i>반복</i>가 ... <i>반복</i>이 있다.
긴장해서 보고 있는 오</p> | <p>선 102 개에
포도주 글라스를 부딪치는
이낙 하</p> |
|--|---|--|--|

레-134

이 아포쿠 갖 살아?
 아 문왔었는데...
 아 닷있어 지름?
 아 (살게 웃으며) 닷 있는것같아요
 아 그쪽에선 이따글 술 마시냐?
 아 거의 없어
 아 그렇게 긴장의 연속인가?
 아 남남부에선 여자들이 술을 잠 한
 다면서요? 담배두 갈 미구 남자
 들의 노리개감에 단축한다면서요?
 아 그게 나쁜가?
 아 동등하지 못하죠
 아 동등해야할 행복합가?
 아 행복하다 안하다 가지구 따라
 문제가 아닙거예요
 아 마미, 라미는 억지를 참구 있다.

이 이 부우족의 꼬리본을 준다
 아 열이본다
 아 동우족의 편이다

아 (우뚱이 본다)
 아 뭐예요 이게?
 아 열이 짝

아 남한의 여자들은 아름답게 볼려
 구 그걸 바꾸지/남자들은 그 남
 세와 그 생각에 활동해진다.
 거지를 모든 생각, 아름답기 못
 한 일체의 환경을 사, 열이뿌리
 구 이 남세와 채강속해서 아늑
 함, 편지를 찾는다.
 아

